

양희은·강석우의

여성시대



양희은·강석우의

양희은·강석우의 여성시대입니다

진행_양희은, 강석우

프로듀서_이은주, 이창호

방송_MBC라디오 매일 아침 9:10~11:00

MBC인터넷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_02-368-1500~3,

문의_02-789-1339

주소_(150-604) 서울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400호 여성시대

표지_안홍범

2009.04 +April

여성시대/월간지/비매월/2009년 4월호 발행_2009년 4월 10일 발행인_(주)문화 방송 대표이사_엄기영 등록번호_라-5413 편집·제작_B&M 커뮤니케이션(02-2272-6046) ※본지는 한국 도서윤리 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일 10일 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CONTENTS

- 004 **여성시대가 흐르는 곳**
행복을 전하는 우편배달부
- 008 **이달의 편지**
내게도 비자금이 외
- 052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
문구점에는 알록달록한 희망이
- 058 **행복을 찾는 사람들**
사회에 빛이 되는 기업, 희망이 되는 기업 만든다
- 065 **여성시대 꾸러미**
내 손으로 받은 세 아이 외
- 076 **아버지의 육아일기**
우리 집 아침풍경
- 079 **성장보고서**
괜찮아! 아무려면 어때, 쉬면서 하렴
- 082 **부부클리닉**
부부도 봄맞이 합시다
- 086 **요리보고 사연보고**
땅과 바다가 전하는 봄맞
- 090 **대중문화 산책**
'구라'를 잘 푸는 해설
- 092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내일이면 늦으리
- 094 **강석우의 스튜디오에서**
결혼 19년, 우리만의 파티
- 096 **이PD의 옹정호투**
내 심리의 반쪽
- 098 **한 장의 생각**
모더존 베커의 <누워 있는 엄마와 아기>

행복을 전하는 우편배달부



경남 거창군 신원면의
임춘섭 씨를 찾아서



올해로 우편배달부 생활 31년차의 임춘섭 씨는 굵이굵이 유순한 시골 길을 따라 배달에 나선다. 경남 거창군 신원면 300여 가구를 마치 자기 집처럼 드나든다. 대부분 어르신들만 사시는 동네니 배달물이 없어도 안부를 여쭙기 위해서다. 어르신들의 약 심부름은 물론 집안의 가스나 수도,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손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하루종일 혼자만 지내시던 어르신들은 임춘섭 씨가 집안에 들어서면 불뭉치듯 말을 쏟아낸다. 제 날짜에 맞춰 약





“오늘도
바깥소식을 안으로 전하기 위해
오토바이는 달린다.
봄 길을 가르며
봄처럼 환한 마음으로.”

심부름을 잊지 않으니 타지에 나가 있는 아들보다 더 살뜰히 대해주신다. 열아홉 살에 시작한 우편배달부 일이다. 그 당시 월급이 3만 4,000원이었다. 자장면 한 그릇이 65원이던 때였다. 고향에 주저앉아 고향지킴이를 하다 보니 누구네 집 순가락이 몇 개인지도 훤히 다.

전화나, 인터넷이니 통신장비의 발달로 우편물의 종류도 많이 달라졌다. 편지나 전보가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각종 고지서나 택배물건이 배달 가방에 들어앉아 있다.

객지에 나가있는 자식들이 보낸 고기나 옷이 든 택배를 받아든 어르신들의 환한 웃음을 보는 날이면 마치 자신이 받은 듯 행복해진다는 임춘섭 씨. 오늘도 바깥소식을 안으로 전하기 위해 오토바이는 달린다. 봄 길을 가르며 봄처럼 환한 마음으로. ♥

Letter 01_ 내게도 비자금이

Letter 02_ 돌아온 아들

Letter 03_ 눈물겨운 우정

Letter 04_ 늦둥이 막내 동생

Letter 05_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

Letter 06_ 하룻밤의 가출

Letter 07_ 밥심으로 사는 사람들

Letter 08_ 아이의 눈물

Letter 09_ “넵또유”

Letter 10_ 제2의 프러포즈

Letter 11_ 자는 아들 다시 보자!

Letter 12_ 통통 분 라면의 힘

• 일러스트_ 김금복



Letter 1

내게도 비자금이

● 글_남상연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저는 손자 한 명을 둔 젊은 할머니입니다. 아들이 비밀로 하라고 했지만 혼자 감추고 있으려니 너무 답답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여유가 없이 생활을 하다보니, 결혼 30년 동안 나만의 비자금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손아래 동서가 몰래 만들어 놓은 비자금 통장을 서방님께 들려 부부 싸움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 마디 했습니다.

“아니야! 아이들 키우다 보면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고 쓸 일이 있더라. 그런데 지금까지 남편 몰래 통장 한번 만들지 못했어. 친구들은 몇백만 원씩은 있는데, 너무 부럽더라고.”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슬그머니 자기 방으로 내 손을 잡아끌더라고요.

“엄마, 내가 CMA 통장 하나 만들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매달 월급 타면 조금씩 넣어 드릴게요. 그 대신 아빠나 누나한테는 비밀이에요. 작은 엄마한테도 말 씀하시지 말고 엄마가 사고 싶은 거나 드시고 싶은 거 사 드세요.”

아들이 손아래 동서와 이야기하는 걸 들은 모양입니다.

제 나이 이제 54세, 아직 아들에게 손 벌려 용돈을 타 쓸 나이는 아니지만 아들의 말에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누나 때문에 모든 걸 양보하고 대학에도 못 보냈는데 말입니다.

“엄마, 공부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대학 나와서 취직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하루라도 빨리 기술 배워 돈 버는 게 낫잖아요.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공부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으니까요.”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위로하는 아들입니다.

1년 전 일입니다. 손이 저려 새벽이면 통통 분 손 때문에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젓가락질도, 물건을 잡는 것도 힘들었지요. 몇 년의 고생 끝에 수근관증후군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 수가 없어 수술도 못하고 힘들게 일을 했지요.

“엄마, 수술비와 생활비예요. 수술받고 몇 달 쉬면서 건강해지세요.”

아들은 1년 동안이나 분 적금을 해약해 가져왔지요. 젊은 나이에 쓰고 싶은 것도 참고 힘들게 모은 돈인데, 그 돈을 수술비로 쓰자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가 건강하셔야지요.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제가 열심히 벌어 엄마·아빠 편하게 모실 거예요.”

아들의 말에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손을 쓸 수 없어 불편했습니다.

아들은 퇴근한 후, 설거지며 빨래까지도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지요.

매달 생활비를 내놓으면서도 비자금 통장까지 만들어 내놓는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맙더군요. 너무 행복해서 아무도 없을 때 몰래 혼자 꺼내 보고, 자다가도 꺼내봅니다. 솔직히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 통장 만들어 줬다.’

아들아, 고마워! 물질적으로는 엄마가 많은 걸 주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세상의 누구보다 사랑해. 열심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살자. 그런데 엄마는 너하고의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다.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서...❤



돌아온 아들

Letter 2

● 글_애청자

지난해 12월 초, 야간 근무가 끝나는 아침 7시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이라며 아들 선배한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하면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응급실에 전화를 했더니,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는 겁니다. ‘아! 큰일이구나!’ 생각하며 운전을 했습니다. 응급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말문이 막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양손에는 수혈 바늘과 해열제 및 진통제 바늘이 꽂혀 있고, 양쪽 무릎은 얼음 찜질팩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없이 노란 게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야간 근무를 한 뒤라 정신이 혼미했지만 아들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들은 나를 보더니 “뭐 하러 왔느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사실 남편을 만나 산 지 24년째이지만 아들의 나이는 31세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 주위에는 아들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해 어저다 한 번씩 집에 들어와 잠만 자고는 말도 없이 훌쩍 떠나 얼굴 잊힐 만하면 찾아오니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응급실이라고 연락이 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들은 친엄마의 유전으로 희귀난치성 혈우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별 이상이 없었고, 같이 살지도 않았기에 나는 아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아프니까 연락을 하니 한편으

로는 화도 났습니다. 전 혈우병 환자의 관절 부위가 가장 약하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의 무릎 관절이 다 망가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야단을 치더군요. “젊은 사람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함부로 살았다”고요.

아들은 양 무릎 관절 사이에 농과 혈액이 차 있어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이틀 동안 수혈과 진통제를 맞고 나서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 후에도 혈우병 때문에 정상인처럼 걷는 건 장담 못 한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시간 넘게 수술을 하고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남편이 아프다고 회사에 거짓말을 해서 야간 시간대로 바꾸어 낮에는 병간호를 하고 밤에는 일을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병문안을 온다고 하면 남편이 창피하게 생각한다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대로 아들이 있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도 덜 아플 텐데 말입니다.

내가 야간 일을 할 때 남편이 간호를 하는 식으로 서로 교대하며 병간호를 했습니다. 매일 오르는 열과 통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데,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큰 아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기란 참으로 고약스러운 일입니다.

같은 병실의 보호자들은 “엄마는 젊은데 아들이 저렇게 찼냐?”며 “몇 살에 낳았냐?”고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일찍 낳아서 그런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내 체격이 좀 나이 들어 보이는 터라 사람들이 약간은 믿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지요.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숫자가 잘못 적혀 있는 줄 알고 몇 번이나 다시 세어 봤습니다. 670만 원. 앞으로도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릴 지 기약조차 없는데, 이 일을 어찌할까 한숨만 나왔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가서 내역을 알아봤더니, 혈우병으로 보건소에 화귀난치병 환자로 가입이 되지 않아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화귀난치병 환자는 나라에서 혜택을 많이 준다는 것을 그때야 알았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소로, 구청으로, 동사무소로 서류를 제출하고 하루하루 날짜가 가고 2주째 병원비 청구서가 1,300만 원이 나왔더군요. 우리는 퇴원할 때 계산하기로 하고는 서류심사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3주째가 지나자 얼굴 표정도, 피부색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체는 비록 완벽하게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좋아졌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 책임이 큼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내 죄가 너무 큰 것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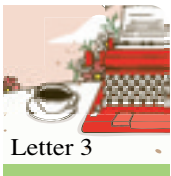
아들은 지난해 12월 말쯤 퇴원했습니다. 위급한 상태가 아니니 집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병원비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액은 4,500만 원이었는데 나라에서 지원받고, 보건소에서 지원받고, 시민단체 봉사단에서 지원을 받아 병원비가 완전히 정리된 것입니다.

남편과 저는 믿을 수가 없었고, 정말 감격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의료비 지원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는 걸 처음 깨달았으니까요. 없는 살림에 병원비를 내려면 집이라도 팔아야 할 형편인데, 감사하다는 말을 어디에다 해야 할지 몰라 남편과 저는 서로 격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응급차를 불러 동네 병원으로 옮겨 아들의 재활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벌써 4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아들은 아기 걸음마를 하듯 한 걸음씩 조금씩 걷고 있습니다.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이 내 주신 적십자 회비나 헌혈증이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고, 한 가정을 돌보아주신 것입니다. ♥





눈물겨운 우정

Letter 3

● 글_최경 | 경남 창원시 양곡동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직장 2년차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되어서도 이렇게 서로를 위한 친구가 될 수 있겠지?”

그때 부모님이 노인요양원을 하고 있는 친구가 며칠 전에 겪은 일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친구네는 경남 산청의 지리산에서 청소년수련원과 노인요양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그런 부모님을 도와 일을 하고 있고요.

노인요양원은 치매나 중풍 같은 병에 걸려 자식들이 24시간 붙어서 돌봐드릴 수 없는 어르신들을 보살펴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온 지 2-3개월 된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하루 24시간 중 절반 이상 정신이 돌아오지 않아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거동도 불편해 거의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하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 저 멀리 입구 쪽에서 허리가 구부정한 어느 할머니가, 할머니의 키만한 ‘박산’이라는 한과를 안고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요양원은 인가가 없는 산골짜기에 있어서 예약을 하고 오시는 손님 말고는 방문자가 없는 편인데, ‘무슨 일이지’ 하고 친구가 내려가 보니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쪽지에는 꼬불꼬불한 글씨로 친구네 요양원 주소와 치매를 앓고 있는 204호 할머니 이름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 내가 김 할매 친군데, 요게 김 할매가 있다게서 왔는데예.”

“아 그러세요? 할머니님 무거워 보이는데, 그 과자는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닙니다, 안 무겁습니다. 오데로 가면 됩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내내 할머니는 할머니 키만한 과자를 안고 꺾꺾 힘들게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친구가 그 할머니를 204호 할머니에게 모셔다드리고는 “할머니! 친구분 오셨어요, 친구 분이 할머니 보고 싶어서 멀리서 오셨어요” 하고 알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할머니님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자를 하나 내어 할머니께 드리고, 제 친구는 반대편 침구와 다른 할머니들을 챙기고

있었는데,가만히 들어보니 한참 동안 두 분은 서로 다른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마주보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대화 말이지요.

“개안나뭇은 개안나?”

“내 고향은 거제도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내 데리러 온다했어요.”

“내가 니 죽기 전에 몬 볼까봐 온기다. 와 이라고 있노. 와 이라고 누워있는 기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은니보다 내를 더 이뻐합니다. 내가요, 막내데요.”

“나가 좋아하는 박산이다. 니 이거 참말로 좋아했다 아이가. 내가 또 니 보러 올 수 있을지는 모르긔다. 나도 오늘 내일 하고, 니도 이래 누워있고.”

이렇게 두 분은 전혀 엉뚱한 대화를 했고, 찾아온 할머니는 결국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 되는 시골에서 친구를 만나러 당신 키만 한 과자봉지를 짊어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당신 죽기 전에 꼭 한 번 얼굴을 보고 가셔야겠다면서요.

그렇게 1시간을 서로 다른 대화를 하신 할머니는 저녁때가 되어서야 자리에 서 일어나셨고, 만 원짜리가 든 꼬깃꼬깃한 봉투를 내미시더니 “저 할매가 묵고 싶다 하는 거 좀 사도고, 내가 집이 멀어서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친구 아버지께 주셨다고 합니다.

친구 아버지도, 친구도 이걸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 잠시 고민했지만 받아두는 게 두 할머니에게 좋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꼭 할머니 맛난 거 사드릴게요” 하고 봉투를 받고는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요양원 문을 나섰고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우리 눈에는 모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곱게 한 화장이 다 번지도록 평평 우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모두는 바쁘다는 핑계로 뜬했던 친구들에게 잘 지내냐는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



늦둥이 막내 동생

● 글_허미은 |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제 나이는 올해 서른셋이고, 막내 동생은 열 살입니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나이 현이 넘어 낳은 우리 집 늦둥이지요. 제가 스물네 살 되던 해에 엄마가 늦둥이 동생을 낳아 집으로 데려왔을 때, 전 “3남매인 우리 집에 무슨 자식이 더 필요해 그 늦은 나이에 자식을 또 낳으셨냐”고 부모님께 따졌습니다.

자식들 장성하기까지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편하고 좋은데, 여행이나 다니지 또 자식을 낳아 고생하실 걸 생각하니 걱정스럽기도 했고, 두 분 모두 40대, 50대인데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막내 동생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물네 살이면 시집을 일찍 갔더라면 자식을 낳을 나이인 저에게 늦둥이 동생이라니요. 하여 친구들한테 웃음거리라도 될까봐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도 우리 막둥이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동생이지만 먼 이웃처럼 동생이 커가는 것을 지켜보던 어느 날, 건강하던 아버지가 간경화로 쓰러지셨습니다. 막내 동생이 겨우 세 살인데 말예요. 아버지의 간경화는 이미 말기라서 병원에서조차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는 말만 하더군요.

엄마는 세 살이던 막내를 가까이 사시던 외할머니 댁에 맡기고, 식이요법을 통해 아버지 병을 고쳐보겠다고 고모님이 계시는 안동의 농장으로 가셨습니



다. 저는 집에서 혼자 직장에 다니며 주말에 한 번씩 막내 동생을 보러가곤 했지요.

아무리 외할머니 댁이고 아직 어린 아이였지만 남의집살이 서러움을 알았던 걸까요? 한 번씩 막내를 보러 외할머니 댁에 가는 날이면 큰언니가 왔다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제 옆에 붙어 다녀 주말 동안은 꿈쩍없이 막내의 엄마가

돼야 했습니다.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 해 외갓집에서 돌아오는 날에는 언니가 간다며 자기 도 따라갈 거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막내가 잠든 새벽시간에 몰래 일어나 외갓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한 번은 안동에서 요양중이던 아버지께서 막내가 너무 보고 싶어 밤마다 우신다는 말을 듣고, 하루 낱을 잡아 막내를 데리고 진주에서 안동행 버스를 타고 아버지를 뵈러간 적이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언니, 우리 엄마·아빠 보러가는 거야? 신난다” 하고 말하던 막내는 제 품에 안겨 처음 타는 버스가 신기한지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갑자기 아무 말 없이 뒷자리에 앉은 가족을 바라보다군요.

젊은 부부와 막내 나이만한 남자아이 세 식구가 저희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아이가 엄마·아빠한테 재롱을 떠는 모습을 지켜보던 막내는 갑자기 시무룩해져 제 품에 얼굴을 파묻더니 이내 “언니, 보송이도 엄마·아빠 있지? 그치? 인제 보러가는 거지?”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응, 그럼! 우리 보송이는 엄마·아빠도 있고, 언니와 오빠도 셋이나 있는 걸?” 하고 말해주니 막내는 “응. 맞아, 맞아” 하며 다시 제 품에 고개를 처박더니 기어이 울고 말더라고요.

안동에 도착해 복수가 많이 줄어 거동이 조금 편해진 아버지와 병간호하느라 촌 아낙이 다 되어버린 엄마를 보며 제발 아버지의 병이 이대로 호전되어 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쌍한 막내가 조금만 더 부모 그늘에서 밝게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제 기도가 간절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해 여름의 끝자락에 아버지는 기어이 세상의 끈을 놓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보다 막내가 불쌍해 더 많이,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막내의 시련은 이제 끝이 아닙니다. 막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후에

큰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대에도 올랐습니다.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심장판막에 난 큰 구멍 때문에 심장 부위가 조금씩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당장 생명에 큰 지장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던 수술을 다섯 살 되던 해에 받았습니다.

8시간에 걸친 대수술. 막내 병원비 마련 때문에 일에 바쁜 엄마를 대신해 제가 수술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동의서에 사인을 하면서 얼마나 떨리고 눈물이 나던지요. 어린 것이 그 큰 수술을 잘 버텨낼지. 가슴 부위를 10센티미터 가량 연다는데, 생살을 찢는 그 아픔을 잘 참아낼지. 힘들고 두려운 수술을 잘 마치고 중환자실에 있던 막내는 연신 엄마와 저를 찾았습니다.

“언니, 나 너무 아파. 아파.”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막내의 손을 잡고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없음이 너무 미안하고 막내가 너무 불쌍해서 간호하는 내내 눈가가 짓무르도록 울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내 눈물 같은 막내를 두고 시집가던 날, 식당에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그동안 내 자식들 키우느라 먹고살기 바빠서 일 년에 한두 번 친정에 다녀오곤 하는데, “큰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언니 안 가면 안 돼?” 하는 막내 동생 때문에 다녀오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친정에 다녀오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친정엄마는 “야야. 니 언제 오냐고 하루에 열두 번도 더 물어본다. 마. 엄마가 죽겠다. 보송이한테는 언제 온다 말하지 말고 그냥 불쑥 온다. 니 올 때까지 큰언니 언제 오냐고, 빨리 안 온다고 내 피를 말린다 아이가” 하십니다.

이번 친정나들이도 아마 큰언니라면 죽고 못 사는 막내 때문에 좀 더 앞당겨야 할 거 같아요. 내 눈물 같은 우리 막내! 앞으로는 늘 건강하고 밝게 구김살 없이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송아! 언니도 니 많이많이 억수로 사랑한다. 늘 건강하게 예쁘게 잘 자라주렴. 알았지?” ♥



Letter 5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

◎ 글_애청자

저는 결혼 5년차 주부입니다. 올해 30세로, 41개월과 26개월이 된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 돌보는 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친정이나 친구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을 봤을 때 ‘아! 이 남자라면 차자식을 굶기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때 제 친정은 무척 어려운 형편이었거든요. 지금도 크게 나아진 건 없지만 그때는 더 심했습니다. 항상 ‘좋은 사람 만나면 얼른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제 엄마·아빠가 아무리 부탁해도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저와는 반대로 지지리도 못 사는 형편도 아니었고, 진취적인데다 잘 나가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일곱 살의 나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잘 맞았거든요. 없는 형편에 딸 시집보내기 어려웠을 친정 부모님께 나이차 따지지 않고 사위를 선택한 점에 감사드렸죠.

어렵게 결혼해 아기도 생기고 그런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호 신용금고에서 대출금 1,000만 원을 갚으라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결혼 전에 친정의 성화에 못 이겨 받은 대출이었죠. 남편은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친정 부모님은 “이혼하라”고 하고,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군요.

통사정을 해봐도 안 되어 결국 집안에 빨간 차압딱지가 붙었고, 남편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제가 진 빚 300여만 원을 남편이 갚아준 적이 있거

든요. 신혼 세간도 거의 남편이 장만했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알까요? 전 정말 뱃속의 아기가 아니었다면 자살이라도 했을 겁니다.

결국 또 남편이 그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딸을 빚쟁이로 만든 친정이 너무나 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시택으로 신혼살림을 옮겼습니다. 인자한 시부모님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둘째도 낳게 됐고요.

한 3년 살다보니 시부모님께서 좀 불편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잠을 푹 주무셔야 건강하다던데, 우리 아이들이 보통 새벽에 잠이 드니 푹 주무시는 날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네 식구까지 늘어 관리비는 물론이고 가스비·건강보험료 등이 것저것 더 신경이 쓰이셨겠지요.

저도 어르신들과 함께 살다보니 불편한 면도 있었죠. 아이들을 보다가도 시간엔 맞춰 밥을 차려드려야 하고요. 쉬더라도 맘 편히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육아문제에 대해서도 간간히 부딪히게 되더군요.

드디어 지난해 9월에 분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른들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남편을 더 신경 쓰게 됩니다. 제 친구들도, 남편 지인들도 저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너무 남편에게 기죽어사는 것 아니야?”

“왜, 기죽어사는 것 같아보여?”

“당연하지. 말끝마다 존댓말에 시키는 대로 다하고 말이야.”

하지만 남편은 말귀 알아듣기 시작한 아이들에게 저를 보고 “니 에미”라고 합니다. 또 출산하고 불어난 몸매인 저를 “똥뽕이”라고 하기도 하고, “못 생겨서”, “니 꼬라지”, “애가 생긴 게 왜 이 모양이냐?”는 말도 합니다.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듣고 살다보니 이제 가슴에 박힙니다.

남편은 “집안일과 애들 보는 건 여자가 하는 일이고, 남자는 돈 벌어오는 거야”라고 합니다. 나가는 길에 쓰레기를 버려 주었으면 하고 조금 불평이라도



하면 “니 집으로 가면 되잖아”라고 함부로 말을 합니다. 물어보는 것 대답을 안 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냥 화내는 게 아니라 이에 무관심으로 대응합니다.

제 남편은 제 친구들도 싫어하고,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살죠. 남편은 “니가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그 모양이냐?”라고 합니다. 남편의 부부동반 동창모임에 가면서 남편은 “여자들하고 쓸데없이 남편 홍보지 마라”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자신은 막 이야기하면서 제가 남편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이야기를 할라치면 “넌 남편을 그렇게 쪽팔리게 만들면 좋냐?”고 합니다.

또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맞는 말을 하면 “니 말은 다 맞고 내 말은 다 거지

같지? 니가 그렇게 잘난 여자냐?”라고 합니다. 아주 심한 욕을 할 때도 있지요. 물론 아이들이 잘 때지만요. 서로 그렇게 기분 안 좋게 있다보면 제가 먼저 사과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러니 화주세요.”

이런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다른 집 부부들은 어찌사는지 몰라도 대개 부인을 존중하며 살겠지요.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휘어잡고 사는 집도 많다고 하던데요. 서로 기분이 안 좋으면 저는 지옥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죽고 싶다.’, ‘여기서 내가 뛰어내리면 놀라기는 할까? 잘해 줄 걸 하면서 후회할까?’, ‘나는 원래 이 모양이라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남편은 사실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좋아해 한동안은 날마다 사람들을 초대해 술을 즐겼죠. 가끔은 제가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하고, 좋아하는 곳 데려가 주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정말 천당입니다.

처가집이라고 있지만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은 남의 말이고 어찌다가도 씨암탉은 커녕 다 자신이 사 먹어야 하고, 장모에게 따뜻한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친구들은 장모가 보약을 해줬네, 무슨 즙을 짜줬네 하면 부럽기도 했겠지요.

제가 능력 있는 여자라면 제 남편도 제게 그런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같이 사는 원수가 아니라 같이 사는 복덩이라고 절 불러줄까요? 저는 생활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받죠. 그러다 보니 만 원 한 장 제 맘대로 쓰는 일이 없지요.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모르고, 이는 것 하나 없는 모자란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전 너무 슬퍼집니다.

남편에게 진지하게 정신과 상담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정신과야? 니가 미친 것도 아니고. 내가 미친년하고 산다고 광고할 일

있냐?”고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어냐?”고 물었을 때, 남편은 “넌 남편 내조 잘하고 애들이나 잘 키우면 돼” 합니다.

‘난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친구들도 없고, 친정집은 초라하고. 난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정말 이러다가는 큰일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혼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러면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잖아요? 그것도 자신 없고요. 어떻게 하면 제 자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좋을 땐 한없이 좋다가도 나쁠 땐 내 자신이 너무 보기 싫어집니다.

이런 제가 아이들에게 당당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나중애 아이들이 내 키 만큼 자라서 “엄마는 상관하지 마!”,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엄마가 뭘 알아!” 하면 어떨까요? 벌써부터 너무 서러워집니다. 저한테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남편에게 전 어떤 존재일까요?

저는 혼자 외출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결혼 전처럼 예쁘게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예쁜 옷 입고 나가면 아직도 매력 있는 여자처럼 보일까요? 너무도 많이 변해 벌써 아이를 출가시킨 아줌마 같을까요?

제 바람은 남편이 저를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니, 존중이 아니라 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요, 제2금융 대출업체인데 친정아버지가 이자를 안 내고 계속 연체중인데 연락이 안 된다며 제게 전화를 했네요. 친정집은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하고 결혼한 걸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쁜 딸과 아들을 낳을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저에게 “예쁜 딸과 아들을 낳아주어서 고맙다. 너처럼 착한 아내와 사는 나는 행운이다, 사랑한다”는 말을 해줬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



Letter 6

하룻밤의 가출

● 글_한은주 |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

벌 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남편과 다툰 후, 기분전환도 할 겸 찜질방을 찾았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으니 찜질방에 있어도 좋은지 몰랐다. 하는 수 없이 저녁 9시쯤 찜질방을 나와 집까지 천천히 걸었다. 집 앞에 거의 다왔을 때쯤 시계를 보니 밤 11시 30분. 두 시간 반 동안 걸었더니 다리가 아팠다. 그때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통명스러운 목소리로 “어디야?” 하기에 나 역시 통명스럽게 “거의 다왔어” 했다. 그랬더니 “뭣 하러 기어들어와” 하더니 전화를 뚝 끊었다. 나는 잠시 내 귀를 의심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당신, 금방 뭐라고 했어?” 하자 남편은 “뭣 하러 기어들어오냐고 했다”고 하더니 또 다시 뚝 전화를 끊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다. 이대로 그냥 곁에 집에 들어가기가 억울해 나는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반자마자 바로 끊어버리더니, 나중엔 아예 전화를 안 받았다.

‘좋다. 니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니 말대로 절대 못 들어간다.’

그 길로 택시를 잡아타고 “아저씨, 대전역요” 했다. 집에 승용차가 생긴 이후 22년 동안 한 번도 기차를 안 타봐서 역이 낯설기만 했다. 무작정 나왔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결국 0시 50분에 있는 부산행 마지막 열차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아까 택시를 타며 꺼냈던 휴대전화를 다시 켜다. 순간 ‘엄마, 어디세요. 도대체 무슨 일 있으시기에 전원도 꺼놓고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하는 아들의 걱정 어린 문자메시지가 마구 쏟아졌다. 거기에 양념처럼 날 찾는 남편의 문자 하나도 끼어 있었다.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 두 사람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 벨소리. 하지만 받지 않았다.

새벽 4시 15분쯤 부산역에 도착한 나는 해운대 바닷가를 찾았다. 주말을 맞아 많은 연인들이 캄캄한 해운대 백사장을 거닐고 있는데, 나만 짝 잃은 외기러기처럼 혼자 백사장을 걷고 있었다. 여명이 밝아 올 때쯤 푸르디푸른 하늘빛은 어쩔 그리 아름다운지.

‘그래! 부산에 오길 잘했어. 비록 좋은 기분으로 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아니면 언제 이 멋진 풍경 보겠어?’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때였다. 푸른 하늘빛 아래로 외롭게 서 있는 등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불을 깜빡이고 있는 등대. 또 잠시 후, 등대 저 멀리 집어등을 환히 밝힌 채 서둘러 항구를 향해 들어오는 어선들이 눈에 들어왔다. 저 배들은 등대가 있어 저렇게 항구로 들어오는데, 지금 나에게 등대가 없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서러운 생각에 왈칵 눈물이 솟았다. 차디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울고 있는데, 또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울렸다, 끊겼다 몇 번을 반복한 뒤 7시 30분쯤 전화를 받았다.

나지막한 소리로 “당신 어디야?” 하고 묻는 남편에게 “어딘진 몰아서 뭣하게. 내가 어디서 죽든 말든 당신이 뭘 참견이야?” 하고 소리를 치며 엉엉 우는데, 순간 전화가 뚝 끊겼다. 한 칸 남았던 배터리가 소진된 것이다.

남편의 전화를 받고나니 갑자기 온몸의 긴장이 확 풀리는 게 몸이 후들후들 떨려왔고, 난 근처 찜질방으로 가서 몸을 녹이기로 했다. 정오쯤 찜질방을 나와 간단히 요기도 하고 휴대전화 충전도 시킬 겸 근처 샌드위치 가게에 들어갔다. 휴대전화를 충전한 후 다시 전원을 켜더니 이번에도 문자가 연달아 쏟아졌다.

‘당신, 부산이야?’ 순간 ‘아니 내가 부산 온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 죽 집게네’ 하고 생각했다.



문자를 천천히 밑으로 읽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문자가 연달아 발견됐다.

‘여보, 나 지금 여수로 출발하요.(오전 8시 31분)’

‘엄마, 아빠 지금 엄마 찾으러 여수로 출발하셔요.(8시 35분)’

‘엄마, 아빠 지금 여수 거의 다 도착하신 것 같은데 지

금 어디세요. 제발 전화 좀 켜고 받고 받으세요.(10시 40분)’

남편이 날 찾으러 오는 모양인데 문자로 ‘부산이야?’ 하고 물을 땀 언제고 (물론 부산이라고 대답은 안 했지만) 난데없이 여수로 갔담? 남편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다. 가출한 마누라 찾겠다고 집을 나선 남편 성의를 봐서 못이기는 척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걸기가 무섭게 “당신 어디야? 나 조금 있으면 여수에 거의 도착하는데” 하는 남편에게 “부산!” 이라고 대답했다.

차를 돌려 다시 3시간 가까이 더 운전을 한 끝에 오후 3시쯤 내 앞에 나타난 남편의 얼굴을 보니 밤새 잠 한숨 못잔 게 분명했다. 누가 꿈꿨는지 아니랄까봐 그 와중에도 남편은 내 몸이 얼었을까봐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 와서는 마치 다방 아저씨라도 된 것처럼 “녹차? 옥수수차? 커피? 우유? 뭐 타줄까?” 하더니 갈아 신을 양말까지 내놓았다. 순간 웃음이 나오는 걸 억지로 참았다. 그런 남편에게 차마 “나, 찹쌀방에서 몸 녹이고 따뜻한 우유랑 샌드위치까지 먹었어” 라고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 몹시 힘들고 지친 목소리로 “옥수수차” 했다.

결혼 25년만의 나의 첫 가출은 이렇게 끝을 맺었지만 궁금한 걸 못 참는 난 다음날 남편에게 “도대체 당신은 왜 내가 여수로 갔을 거라 생각한 거야?” 하고 물었다.

남편의 설명은 대강 이랬다. 밤 11시가 넘도록 안 들어와 걱정이 돼 전화했는데, 집에 거의 다 왔다고 하자 그럼 곧 들어오겠지 하고 마침 화도 났겠다, 전화 뚝 끊고 안 받았다는 거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록 내가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받자 걱정이 되어 차를 몰고 우리 동네는 물론 다른 동네까지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고 한다. 그런데도 내가 없기에 혹시나 하고 인터넷으로 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해보니 0시 41분에 코레일에서 1만 6,800원을 사용한 흔적을 발견했단다. 그래서 대전역에 전화를 걸어 “0시 40분 전후로 1만 6,800원에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고 물었더니, 대전역에서는 “1만 6,800원에 갈 곳이 없다”고 해서 이번엔 서대전역에 전화를 걸었는데, 마침 서대전역에서 0시 47분에 여수행 열차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남편도 몰랐던 것이 있다. 난 분명히 1만 6,800원을 내고 부산에 갔다. 원래 부산까지의 무궁화호 좌석요금은 1만 7,200원이었다. 그럼 왜 내가 1만 6,800원을 냈냐? 그 이유는 대전에서 부산까지 앉아 갈 좌석이 매진됐고, 마침 충북 영동에서 내리는 손님이 있으니 30분만 서서 가면 영동에서 부산까지 앉아 갈 수 있다는 매표소 직원 말대로 했을 뿐이다. 즉 영동까진 입석이고, 그 다음부터 좌석이니 요금이 달라졌던 것이다.

남편은 “100만원 차이가 났어도 내 직감대로 여수가 아닌 부산으로 곧바로 갔을 테고, 그 고생 안 했어도 되는 거였는데 하필 딱 당신이 표를 구입한 시간대와 1만 6,800원이라는 요금까지 같은 여수행이 있으니 내가 그걸 믿을 수밖에...” 하며 억울해 했다.

잠시나마 내겐 등대가 없다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남편은 내 등대가 확실했다. ‘여보! 날 찾아 헤매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는 가출 같은 건 안 할게. 사랑해요!’ ♥



Letter 7

밥심으로 사는 사람들

● 글_애청자

며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을 나가자니 “내가 이 나이에 설거지하러 가야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 억울하고 분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 식당에 설거지나 하라고 시집보내진 않았을 텐데... 말릴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결혼할 걸’ 하는 후회마저 들었습니다.

내 나이 마흔. 이럴 줄 알았으면 전공 공부나 좀 해놓을걸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아이 키우며 그냥저냥 산 세월까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대학 나왔다는 자존심에 아무 일이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존심 세워줄 만한 일을 찾기가 더 어렵더군요.

지금 처한 현실이 단순히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꼭 ‘돈을 벌어야’ 하는지라 더 이상 손을 놓고 구경만 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남편이 친구 보증에 카드까지 빌려줬습니다. 보증은 겨우 해결이 됐지만 내가 쓴 돈도 아닌 남편 친구가 쓴 돈을 갚아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경기가 안 좋다보니 남편 벌이조차 일정치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빚이 점점 늘어났고, 더 이상 손 벌릴 곳도, 빌릴 곳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입는 것 줄이고, 먹는 것 줄이고, 아이들 학원마저 다 줄이고, 더 이상 줄일 곳도 없는데 빚은 늘어만 갑니다. 그런 제게 얼마 전 남편 친구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집 가까운 곳에서 김밥집을 하는 친구입니다.

“언니, 저희 집에 일하는 이준마가 갑자기 이사를 하는 바람에 그만됐거든요. 언니가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쳐 줄게요.”

일 년 전, 처음 김밥집을 개업할 때 사람이 없어 며칠 도와준 적이 있어 제게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처음엔 안 된다고, 못 한다고 거절을 했죠. 지금 배우는 것도 있고, 몸이 부실해 못 한다고요. 잠깐 도와주는 것과 계속 일을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한 마디로 거절을 했는데, 남편 친구가 남편에게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싫다고 했는데, 남편의 월급날 금액을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제게 당장 필요한 건 아이들의 학원비와 밀린 세금들을 내야 할 돈입니다. 남편은 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고개를 끄는다고 해서 내 눈앞에 닥친 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결국 일을 가겠노라고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간은 괜찮았죠. 9시부터 가게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날 점심에 나갈 찬거리를 만들고 설거지하고 준비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몸살이 났습니다. 남들은 5시간 일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냐고 하지만 신체가 부실하다보니 제겐 그 일도 벅했습니다.

처음엔 제 일도 벅차 손님이 오면 오는가보다, 가면 가는가보다 하면서 제대로 손님을 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이 지나고 보니 일도 어느 정도 몸에 배고, 조금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식재료를 배달해주는 아저씨께서 “경기가 어렵긴 어려운 모양입니다. 요샌 5,000원 넘어가는 밥집엔 손님이 없어요. 그나마 김밥집은 저렴해 좀 나은 것 같습니다”라고 할 때만 해도 뭐 그럴까 싶었죠. 게다가 제가 일하는 김밥집에는 점심때 도로 공사장 인부들이 와서 밥을 대놓고 먹으니, 다른 식당보다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일에 여유가 생기다보니 손님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공사장 인부 중엔 중



국 사람도 있습니다. 매일 짜개나 덮밥이나 국거리가 바뀌어 나가는데, 어느 날 돈가스가 나간 후로 그 인부들은 하루 2끼 이상을 돈가스만 먹습니다. 중국음식이 기름진 게 많다보니 우리나라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은지 잘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튀긴 돈가스는 입에 맞나보더라고요. 게다가 돈가스 소스에 공기밥 한 그릇 이상을 비벼먹습니다.

그리고 인부들 중에는 직원들과 일용직 인부들도 식사할 때보면 차이가 있더군요. 보통 밥그릇에 밥을 담을 때, 머슴밥처럼 동그랗게 산을 만들어서 냅니다. 그런데도 밥이 부족하다고 밥을 더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드시는데, 특히 일용직 인부들께서 더 많이 드십니다.

날도 추운데 밖에서 일하다보니 배가 더 고프신 모양이더군요.

또 다른 분들은 차로 5분 이상 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귀찮다며 차라리 공사장에서 라면이나 끓여먹자고 하니 같이 온 일행분이 구수한 사투리로 “나는 밥 힘으로 버텨. 귀찮으면 자네 혼자 라면 끓여먹어. 나는 밥을 먹어야 힘을 쓰니까” 하며 귀찮은 것보다 밥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바탕 점심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분이 오는데, 꼭 김밥 두 줄만 드십니다. 옷차림을 보니 이분들도 공사장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김밥 두 줄만 드십니다. 가끔 가다가 라면을 시킬 때도 있지만 보통은 김밥 두 줄입니다.

다른 인부들은 보통 사람들 밥그릇으로 치면 거의 세 공기 정도를 드시는데, 점심을 김밥 한 줄로 버티다니 신기했죠. 처음엔 쉬운 일을 하나? 반찬이 입에 안 맞아 그러나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점심값을 줄이려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제는 두 분 중에 한 분만 오셨기에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하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아파서 오늘 못 왔어요. 김밥 한 줄은 포장해주세요” 하는데, 맘이 짠더라고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가끔 다치는 분도 계시고, 몸이 아파 일을 못하는 분도 계시며, 그날 일이 없어 쉬는 분도 있습니다. 다들 집 떠나 타지에서 일하느라 몸은 고생이지만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일거리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웃음짓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버스를 타려고 정거장까지 걸어가다 보면 도로에서 일을 하는 그분들을 봅니다. 일하면서 그래도 안다고 눈인사라도 건네는 분들. “오늘 진짜 잘 먹었습니다”라며 식사 후엔 꼭 인사를 하시는 분들. 김밥집에서 일하는 걸 잠시나마 부끄러워했던 제게 그분들의 감사인사가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경기가 어렵지만 마음만큼은 어려워지지 말자 다짐을 합니다. ♥



Letter 8

아이의 눈물

● 글_이은희 |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봄 방학 이후, 학원생들의 등록률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봄하고는 영 판판이다. 지난해에는 예비 중학생반에 아이들이 넘쳐 다 받지를 못할 정도였다. 한반에 25명인데, 30명 넘게 들어와 버린 것이다. 그리고 초등생반과 중학생반도 꽉꽉 들어차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숨 가쁘게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영어를 가르치고 세 선생님은 수학과 국어, 과학을 가르친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세 명 선생님의 월급 맞춰주기도 빠듯하다. 과학 선생님은 이래저래 내 눈치를 본다. 원생이 확 줄어 든 마당에 수학 선생님이 과학을 함께 가르쳐도 될 정도로 수업에 여유가 있다. 과학은 초등생반만 가르치니, 수업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전문성 없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내 심정이지 만 상황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그때는 어쩔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내 마음이 춥고 착잡한데, 더 착잡한 일이 생겼다. 우리 학원에 2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니는 자매가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이다. 두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수업을 듣고 학원에 그 누구보다 일찍 와 앉아 있다. 아이들은 우리 학원에 오는 게 하루 일과 중 가장 기쁘고 신나는 일이라 했다. 공부도 하고 여러 선생님을 만날 수 있고, 코코아도 공짜로 먹을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 시험 끝나면 원장 선생님이 사주는 햄버거가 가장 맛있는 간식이라 한다.

두 아이들 어렸을 때 엄마가 가출하고, 아이들은 할머니 손에 자랐다. 막노동판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벌이로 지금껏 생활하고 있고, 아이들은 집에 가면 할머니밖에 안 계시니 심심하기 짝이 없단다. 그러니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래들이 모여 있는 우리 학원이 가장 즐거운 곳이라.

그런데 이 두 아이들이 학원에 오질 않았다. 결석이라고는 모르는 아이들이라 놀라 전화를 해보니, 아버님의 일이 많이 줄어 하루 일 나가고 이틀 놓고 해서 학원 보낼 형편이 안 된단다. 그러니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 달란다.

아이들이 집에서 할머니이랑 아버님이랑 무엇을 하고 보낼지 안 봐도 알 것 같았다. 일단 아버님 말을 기다렸다가 어렵게 말을 건넸다.

“두 아이는 우리 장기 원생인데 학원비 안 내도 되니까 그냥 보내세요. 선생님들과 저하고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4학년, 6학년이 되는 마당에 집에서 놀리면 큰일납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냥 보내세요, 돈 안 받을 테니까요.”

내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둘이 합쳐 아버님이 내는 학원비는 3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세 과목을 그냥 수강하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몇 년의 학원 경영에서 형편이 충분히 되어도 일 년을 넘게 연체하고는 안 내고 이사가는 학부모들도 봤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집은 한 번도 연체한 적 없이 학원비를 잘 냈다. 어쩔 수 없이 못 보낼 형편이라는 것을 알기에 내가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됐다.

다음날 어김없이 자매가 보였다. 그런데 큰 애가 아빠가 갖다주라고 했다면 서 뭇가를 내밀었다. 신용카드였다. 신용카드 위에 붙여진 쪽지에는 ‘카드로 학원비를 낼게요’ 라고 적혀 있었다.

아마도 아버님이 학원비를 내려고 누군가로부터 카드를 빌리신 것 같았다. 나는 아이들 편에 카드를 돌려보내며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다.

“카드로도 학원비를 안 받습니다. 사정을 다 아는데 제가 어떻게 학원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괜찮으니 그냥 아이들 보내십시오.”

아버님은 다행히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않으셨다.

“원장님이 정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원장님 신세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보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동생은 학원에 오는데, 언니가 보이질 않았다. 동생이 “언니가요, 저를 요 앞에까지만 데려다 주고는 집으로 가 버렸어요. 언니는 학원에 이제는 안 올 거예요”라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다음날 학원 앞에서 동생을 데려다주는 언니 팔을 붙들고 원장실로 데리고 왔다.

그 아이는 학원에 안 다녀도 된다는 말을 했다. 혼자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고 그랬다. 내가 “왜 그리도 좋아하는 학원을 안 다니려고 하나?”며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모르냐?”며 아이에게 물었다. 그러자 갑자기 붓물 같은 울음을 터뜨리며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원장 선생님도 돈을 받아야만 학원을 운영해 나가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명 다 돈을 안 받고 공짜로 가르쳐 주시면 원장님 학원 망하잖아요. 우리

때문에. 엉엉.”

이렇게 말하며 걷잡을 수 없이 우는데, 아무리 열세 살이라지만 머릿속은 멀쩡한 어른이나 다름없었다. 이빨째! 내가 카드를 되돌려 보내면서 아이들에게는 아버지한테서 학원비를 받았다고 했어야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으니 그새 큰애가 눈치를 챈 것이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말씀 더 잘 들어야 한다고요.”

너석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나와 세 선생님 모두 서로 부둥켜안고 엉엉 울었다. 내 행동이 이 어린 아이에게 그렇게 큰 서러움을 안겨주었다니, 나도 아이한테 미안해 눈물이 나고 선생님들은 상처 입었을 아이 마음이 불쌍해 울었다. 우리는 그렇게 울며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이해했다.

내가 “내가 공짜로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야. 아버님이 학원비를 조금씩 주시기로 했어. 그리고 아버님이 돈 많이 버시게 되면 그때 학원비 못낸 것 다 갚아주시기로 했으니까, 너희가 공짜로 학원 다니는 거 절대 아니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알았지?” 하니 그제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선생님들도 아이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독겨주었다.

그 후 자매는 다음날부터 학원에 예전처럼 잘 다니게 되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와 교실을 정리하고 마커와 지우개를 갖다놓는다. 내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일까? 아닌 것 같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일 게다.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른들보다 더 정확하고 올바르게 셈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것도, 어찌면 내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게 아닌 것 같다. 감수성이 풍부한 작은 거인들을 내 품에 안고 키워온 것인지도 모른다.

학원이 언제까지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의 눈물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 같다. ♥



Letter 9

“넵또유”

● 글_이석용 | 대구시 북구 산격동

옛날 우리 동네에 유명인사가 한 명 있었지요. 1970년대 충남 공주에서 유 일하게 대학생이었던 그 이름은 병길이에요. 초등학교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를 장학생으로 나왔고, 대학에 가서도 병길이 엄마는 장학금을 타러 간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병길이 어머니! 오늘 예쁘게 하시고 어디 가신대유.”

“학교에서 장학금 타러 오라고 했시유.”

“그러유? 참 좋으시겠네유. 병길이는 어쩔 생긴 것도 그렇고 공부까지 잘하니, 밥 안 잡쉬도 배부르것어유. 근데 우리 집 애새끼들은 하나같이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디야.”

엄마는 바로 집으로 돌아와 빗자루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이놈의 새끼들아! 텔레비만 보지 말고 처먹고 할 일 없음 공부나 혀! 니들 한 놈이라도 앞집에 병길이 형을 보라. 아랫집 윗집에서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것다.”

형들과 저는 책상에 앉았지만 ‘공부?’ 그럴 턱이 있겠습니까? 당시 제 나이 9세. 형 나이 17세. 형은 책상에 앉으면 자고, 눈뜨면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 형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형에게 기대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동네 우물가에 앉아 빨래를 하던 어머니는 병길이 엄마 옆에 찰싹 붙어 앉으셨습니다.

“병길이 어머니! 병길이는 어떻게 공부를 시키길래 그렇게 공부를 잘 한대유?”

무슨 비결이라도...”

병길이 엄마가 대답을 안하자, 빨래 방망이로 신나게 빨래를 두들겨 패더니, “병길이 어머니! 병길이는 집에서 텔레비 안 보지유? 우리 집 애들은 천날 만날 그놈의 텔레비만 보네유.”

“그럼, 텔레비 갖다버리면 되잖아유.”

“아이구! 그 아까운 걸 어떻게 갖다버려유. 얼마나 어렵게 산 텔레비인데. 병길이 엄마도 알잖아유.”

“그럼 그냥 넵또유, 불라고 사들인 텔레비한테 보는 건 당연하잖아유.”

그때 저는 엄마를 졸랑졸랑 따라다녔기 때문에 병길이 엄마와 우리 어머니의 대화를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병길이 어머니, 그럼 텔레비만 없으면 될까유?”

“그건 모르지유. 그때 가봐야 알자유.”

병길이 엄마의 성의 없는 말에도 며칠 후 우리 집 텔레비전은 동네 노인정으로 갔습니다.

“요놈들, 텔레비를 쳐다보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만날 그놈만 쳐다보다 공부는 언제 할꺼여? 이젠 텔레비도 없으니까 공부 좀 혀 어이?”

하지만 텔레비전이 없어지자 우리 형은 책가방만 던져놓고 나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길이 어머니! 우리 애가 텔레비가 없으니까 집에 오지 않아유.”

엄마가 앞집 병길이 엄마에게 근심스레 이야기했습니다.

“넵또유. 걸어다니는 인간이 어딘들 못가겠시유. 놀다오겠지유. 뭘.”

병길이 엄마 말대로 해가 지니 형은 들어왔습니다.

다음날, 형은 어디서 빌려왔는지 만화책을 한 아름 빌려왔습니다.

“병길이 어머니! 우리애가 오늘은 책상에 열심히 앉아 있길래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요상한 그림이 있는 책만 읽어대유. 아이구, 이제 어쩔대유?”

“넵또유. 그것도 읽는 공부잖유. 무슨 책이든 읽는 게 중요하잖아유.”

그래서 형은 만화책을 마음껏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의 책꽂이에서 희한한 그림책이 나왔는데, 그건 외국 사람들이 벌거벗고 있는 그림책이었습니다.

“오매, 망측해라! 이놈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아이구, 내가 못산다! 그러, 이놈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때 마당을 지나가던 병길이 엄마를 어머니가 불러들였습니다.

“병길이 업니! 이것 쫘 봐유. 우리 애가 이런 걸 보나 봐유. 워짜면 좋테유?”

병길이 어머니가 책장을 몇 장 펼떡펼떡 넘기더니 말했습니다.

“넵또유 그것도 한때유.”

한참을 쳐다보던 어머니가 화가 난 듯 물었습니다.

“아니 병길이 업니! 병길이가 이런 걸 봐도 넵두나유?”

“그럼유. 그럴 나이잖아유.”

그러던 어느 날, 형은 어머니한테 기타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화가 난 엄마가 작대기를 들고나가며 “이놈이 만날 돈타령이냐?” 했습니다.

지계작대기에 맞은 형은 절뚝이며 도망갔고, 화가 난 어머니는 병길이 엄마에게로 갔습니다.

“병길이 업니! 내가 속상해서 못 살아유, 못 살아! 오늘은 또 기타가 뭔가 사 달래서 작대기로 두들겨 뺐어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면서 엄마는 철썩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쿵을 고르던 병길이 엄마가 쿵에서 손을 떼지도 않고 “넵또유. 하고 싶은 건 해야잖아유. 그것도 한때잖아유” 했습니다.

엄마가 화가 나서 쿵을 고르던 상을 확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아니, 넵두면 그 돈은 병길이 업니가 주는 거유? 아니 그리고 애들이 돈 귀한 줄 알아야 하느디 돈 하면 땅에서 그저 솟아나오는 줄 안 다니깐유. 병길이

는 안 그러지유?”

“안 그러긴 뭐가 안 그러유. 우리 병길인 더 했시유. 그래서 아예 돈이 어디에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쓰고, 그 내역은 항상 적어서 붙여놓으라고 했는 걸유.”

엄마가 눈을 크게 뜨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돈을 병길이는 알아서 끄내 가고 그 밑에 내역서를 쓴다고유? 그래도 되나유?”

“그럼유. 뭐든 지가 알아서 쓰고 한 달 동안 지가 쓴 돈이 얼마나 되는지 본인이 계산해봐야 부모가 얼마나 많은 돈을 자기네들한테 투자하는지 알거든유. 그래서 알아서 쓰도록 넵또유.”

엄마는 형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니 저 책꽂이 둘째 칸 책갈피에 돈 있으니까, 그 밑에 노트에 내역서 쓰고 필요한 만큼 쓰고 한 달 결산한다. 알겠제?”

형이 책꽂이의 돈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왜 그런디야? 야호.”

며칠 후, 책꽂이 밑 내역서에는 기타 등등 000원이 써 있었습니다.

화가 난 엄마가 병길이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병길이 업니! 우리 애들이 한 달 쓸 돈을 3일 만에 다 써버렸시유. 이걸 어쩔 좋테유?”

“넵또유. 담달엔 한 푼도 안 주면 되잖아유. 그래야 돈 귀한 걸 깨우치며 끄는 거예유.”



“애구, 속상해. 내 이놈을 들어오면 다리몽땅이를…”

그때 병길이 어머니는 동그란 눈을 더 동그랗게 뜨며 콩 고르기를 멈추고는 말했습니다.

“다리몽땅이를 뽕질러 놓으면 평생 먹여 살려야 해요. 그런 말은 말고 그냥 냅또유.”

“냅두긴 뭘 냅또유!”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서 제 팔을 냅다 끌면서 방문을 박차고 나오며 “병길이 엄닌 장학금 타는 아들이 있으니까 그러지유. 우리 애새끼들 같은 놈들만 키워봐유. 그런 말이 나오겠사유?”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발끈 화가 난 병길이 어머니가 “그럼 왜 저더러 자꾸 물어본 데유? 나 참” 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앞서가자 뒤통수를 툭 치며 “빨리 가 이놈아. 그리고 너는 왜 만날 내만 따라다니는겨?” 했지요.

집에 오자 형이 기타를 끼고 ‘똥똥똥~ 똥똥똥~ 똥똥똥~’ <로망스>를 치며 기타를 배우느라 열심이었습니다. 엄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요. 어머니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기타를 빼앗아 아궁이에 처넣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차비를 아껴서 1년 만에 또 기타를 샀고, 지금은 어느 호텔나이트클럽에서 베이스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동네 이즘마들은 병길이 어머니께 “아들을 어떻게 키웠느냐?”고 물으면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그냥 냅또유. 방목해서 키웠어유. 다자기 살길 따로 있는데, 부모가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유.”

그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 내 자식 자라 키워보니까 옛날 병길이 어머니님 말씀이 다 맞았습니다.

“병길이 엄니! 어머니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아요. 병길이 엄니! 아직도 공주에 사시납유? 오래오래 사세유!” ♥



제2의 프리포즈

Letter 10

◎ 글_이상진 | 전남 무안군 일로읍

저는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관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죄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7년 7월에 구속되었으니 어느덧 해가 두 번, 그리고 계절이 여섯 번이나 바뀌었네요.

막힌 창문과 창살 사이로 태양이 비추건만 이곳의 이품과 상처는 따스하게 감싸주지 못하는군요. 물론 이곳에도 분명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건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선뜻 와 닿지 않은 듯합니다.

하지만 출소일을 며칠 앞둔 제 마음 속에는 봄의 소식들이 상큼하게 그리고 새롭게 느껴집니다. 너무도 마음 아프고 가슴 답답했던 현실 속에서 오매불망 그리던 순간을 이제 며칠 후면 맞게 됩니다.

지난 1년 7개월의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낙서이자 삶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속과 1년 6월형의 선고 그리고 항소 기각, 형 확정에 이르는 시간 동안 너무도 고통스럽고 참담했던 현실에 저는 극심한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체중은 17kg이나 빠졌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더구나 저로 인해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당시 저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 심장이 타버릴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심장을 꺼내

찬물에 식혔다 넣고 싶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용기가 없는 내 자신이 구역질이 나요.’

저와 결혼해 너무도 성실하고 진실되고 바르게 살아온 아내에게서 온 편지를 보며 죽고 싶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한 와이프지만 어쩔 수 없이 아들과 함께 친절으로 들어가 제 근황을 외국출장으로 감춘 채 이 오랜 시간을 홀로 가슴앓이 한 아내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나갈 듯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는 재판과정을 보며 마음을 줄이고 기도하던 저희의 바람과는 달리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저는 미결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내의 얼굴과 목소리는 저에게 희망과 용기의 원천이었지만 저는 그녀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10여분 화상면회 시간 동안 너무나 죄스럽고 미안해 그저 눈물만 흘리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 시간들을 잘 견뎌 주었습니다. 혼자서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들을 처갓집에서 키우면서 제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8일, 교도소의 도움으로 교도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펜션에서 ‘만남의 집’이라는 행사를 통해 아내와 아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 4개월 만의 만남이라 많은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자리에 나갔지만 반가워하는 아들과는 달리 아내는 저를 너무 낯설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당신보다는 내가 당신을 더 사랑했어. 나는 그동안 당신이 없으면 못살 정도로 당신을 좋아했는데, 지난 1년 4개월 동안 당신의 빈자리는 있었지만 이제는 당신 없이도 아들이랑 잘 살 수 있

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제 그동안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당신 마음대로 살아봐.”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언제나 내 아내, 내 반쪽일 것 같은 아내의 입에서 나온 폭탄선언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 좋아졌겠지 생각했던 저에게 커다란 자극이 됐습니다.

저는 진실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제 마음과 각오 그리고 마음 속 진심을 이야기했고 “변하겠노라”고 “이미 변화됐노라”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밤새 눈물과 웃음, 위로와 아픔을 함께하며 서로의 상처를 싸매 치료했습니다.

이틀 후 보내온 아내의 편지에는 절망대신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9번째 결혼기념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면회를 온 아내에게 결혼기념일에 반지를 서로 나누어 끼자고 했더니 지금 금값이 얼마인 줄 아느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아내는 자기 목걸이를 녹여 반지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저는 당장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밀도 끝도 없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다시금 제2의 프러포즈를 아내에게 하고 싶습니다. 제 달라진 모습과 마음 그리고 사랑을 아내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결혼기념일에 즈음한 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우쭐(아내의 애칭)아! 나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당신으로 인해 내 삶이 변할 거야. 지금까지 서른여섯 해는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남은 시간들은 당신과 아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살 거야. 죽는 날까지 당신을 사랑해.’ ♥



Letter 11

자는 아들 다시 보자!

● 글_원희영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어렸을 때부터 유별나 몇 번씩 가슴을 쓸어내리며 조마조마 키운 아들이 드디어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지방대학이지만 제가 원하는 자동차기계공학부 수시에 합격했습니다. 아들은 수능시험이 끝나기도 전에 보쌈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지요. 공부할 때는 졸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밤에는 일찍 자려고만 하던 녀석이 돈을 번다니까 하루 6~7시간 정도나 일하면서 밤 12시가 넘어 끝나고 들어와도 지치지도 않고 신나하더군요.

언제까지 버티는지 지켜보자 했습니다. 두 달 정도 해서 150만 원을 벌었으니 오토바이를 사겠다며 일을 그만두더군요. “오토바이는 절대로 안 된다”고 “차라리 호적을 파서 나가라”고 며칠을 싸우다가 아들은 “그럼 스노보드 장비를 구입하겠으니 50만 원 정도 모자라는 걸 보태달라”고 했어요.

제가 벌었다고 돈을 넣어 놓고는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도 보여주지도 않기 에 그대로 두면 몰래 오토바이를 살까봐 차라리 보드를 사라고 했습니다. 통장은 세뱃돈 등을 받으면 넣어두었던 아들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아들 녀석이 내 놓으라고 졸라대기에 대학교 들어갈 때 줄 테니 그때부터 관리하라고 했지요. 몇 번 조르다가 잠잠하기에 저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상 정리를 하다가 통장과 도장이 두꺼운 문제집 사이에 끼워져 있기에 봤더니 몇십만 원의 돈이 들락날락거리다가 잔액이 0원으로 돼있더군요. ‘돈을 모아 오토바이를 샀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

에 들어온 아들에게 슬쩍 “아들, 비자금 통장 있던데?” 했더니, “자기 책상을 왜 뒤졌냐?”며 언성을 높이다군요. 그래서 “뒤지기는 뭘 뒤져? 연말정산하려고 은행에 서류 떼려고 했더니 엄마가 가지고 있는 것 말고도 네 이름으로 된 통장이 더 있더라”고 했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들은 “그럼,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3개 다 나와요? 그거 하나는 그냥 처음에 만들어서 돈 하나도 없고, 돈 있는 거는 그냥 하나뿐인데 걱정하지 마요. 나쁜 짓 하는데 안 쓸게요” 하는 겁니다. ‘아이구, 그럼 아까 내가 본 잔액 0원짜리 말고 다른 통장이 더 있구나’ 하는 생각에 뒤통수를 맞은 것 같더군요.

어쨌든 스노보드도 위험하지만 그래도 탈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제 덜 위험하니 낫겠다 싶어 허락을 했지요.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친구와 가서 당장 사오더니 새벽 6시에 집 근처에서 출발하는 스키장 셔틀 버스를 타고 몇 번을 다녀왔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말린다고 들을 녀석도 아니라 잔소리는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붙었다고 실기 코스를 연습한다며 연수비를 내달라고 하더군요. 3일 운전연습을 하고는 또 코스에 붙었다며 주행시험을 본다고 했습니다. 기본 10시간을 받자마자 면허시험에 붙었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운전면허를 따겠다는 이야기를 왜 안 하나?’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하튼 수고했다고 엉덩이를 두들겨주며 “공부를 그렇게 쉽고 재미있게 스스로 했으면 얼마나 예뻐올까?” 했더니 그냥 웃더군요.

면허증을 가져왔기에 저는 “그래, 앞으로 운전하게 되면 조심해서 해라” 하고 무심코 지나갔는데 딸애와 남편은 면허증을 보며 “너 원동기 면허는 언제 또 땀냐?” 하고 묻더군요. 제가 깜짝 놀라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엄마는 내가 무면허로 오토바이 타기를 바랐어요?” 하면서 오히려 당당해 하더군요.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의 오토바이를 몇 번 얻어

탈 때도 자기는 무면허가 아니었다고 걱정 말라고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수능시험이 끝난 날,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아들에게 마실 수 있을 때까지 마셔보라며 술을 주니, 소주 2병을 마시고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제가 “너, 학교 다니면서 오토바이 탄 것 말고 술도 먹었냐? 혹시 담배도 피냐? 엄마가 모르는 게 또 뭐가 있냐?” 하고 다그쳤더니 아들 녀석은 “아침에 해장국 끓여준 날은 내가 술 먹고 들어온 거 엄마가 알고 끓여주신 줄 알고 말은 안 했지만 고마워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그리고 담배는 한 번 피워봤는데, 제 몸에 안 맞아서 안하기로 했어요” 라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혔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고 쳐서 속상하다고 말할 때, ‘우리 아들은 아직은 그런 거 안 해요. 공부 못하는 거 말고는 아직 말썽 피우는 것은 없지요’ 라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이게 뭐냐? 아유 창피해. 다른 사람들이 속으로 엄마가 거짓말했다고 얼마나 흥났겠냐? 엄마는 당연히 그런 것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고 네게 늘 말했고 너는 그런다고 대답했기에 당연히 그런 줄 믿었지. 뭐야 남들 하는 거 다한다는 거잖아, 결국.”

“엄마, 걱정 말아요. 다른 사람들은 엄마 말 들으면서 그냥 뭐 ‘아직 아들을 제대로 모르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 축구하다 다쳤다고 다리 상처 보여줄 때도 그대로 믿고 약을 발라줬는데, 그것도 오토바이 타다가 다친 거였니?”

“그렇죠. 아빠랑 누나는 대번에 알던데 엄마만 모르신 거예요. 아빠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살짝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식탁 위에 웬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새벽에 아파트 한 바퀴 돌며 운전연습 좀 하려고 차를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 다른 차가 있어서 지하에 주차시켰어요. 안녕히 다녀

오세요.’

깜짝 놀라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의 최신 검색 목록을 보니 홍대·임진각·자유로·마두역 등이 마구 찍혀 있는 겁니다. 또 기가 막혔지요. 몰래 운전할 까봐 가족보험으로 바뀌서 들어두긴 했지만 감히 새벽에 차를 끌고 돌아다닐 줄은 몰랐지요. 또 그럴까봐 차 키를 치운다고 침대 머리맡에 감추고 잤더니, 그 다음날 녀석은 “차키 가지고 나가는 것도 모르고 주무시면서 왜 숨겨요. 우리 신사적으로 그러지 맙시다” 라며 능글맞게 웃더라고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저 녀석, 어젠 새벽까지 TV 보고 늦게 자더라” 고 하더니 사실 TV를 켜놓고 살짝 나가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다 들어온 것이 분명합니다. 차도 주차한 자리에 그대로 있고, 일부러 타이어를 옆으로 돌려놓은 채 주차시켜도 다음날 아침에 보면 그대로 있어서 이제는 안 그런가 보다 했더니 차를 끌고 나갔다가 똑같이 주차를 시키고는 시치미를 뻔던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혔어요.

늦게 들어오지 말라고 전화하면 알았다며 일찍 들어온다고 대답은 시원스럽게 해놓고 새벽신문과 함께 들어옵니다. 몇 시에 들어왔냐고 물으면 무조건 새벽 1시쯤에 들어왔다고 하기에 “CCTV에서 확인했는데...” 하고 넘겨줬었더니 “엄마, 이제 별거 다하세요. 그래요 4시에 들어왔어요” 라고 실토합니다. 나가는 녀석의 등 뒤에 대고 “아들, 오늘은 몇 시?” 하고 물으면 아들 녀석은 “문지 마시고 그냥 CCTV 확인하세요” 하고 건들거립니다.

얼마전에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통지서가 나오더군요. 여러 가지로 말썽 피우고 맘에 안 들게 행동해서 빨리 군대나 가서 정신 차리고 나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막상 통지서를 보니 마음이 쩡하고 눈시울이 벌써부터 붉어집니다. 어쨌든 딸보다는 아들이 더 애틍단지인 것 같습니다. 아들 두신 부모님들! ‘자는 아들 다시 보고, 자동차 키 확인합시다.’ 껴보니 안 그러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도 있더군요. ♥

통통 분 라면의 힘

◎그림_심경희

※ 이 만화는 이흥탁 씨(전남 순천시 연향동)가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경남 진주의 도동초등학교 앞에서 '피노키오 문구점'을 하는 강갑임 씨는 아무래도 문구점이 쇠퇴기에 접어든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0년이 다 되도록 문구점을 해왔습니다.

경남 진주시 |
강갑임 씨

문구점에는 알록달록한 희망이



강갑임 씨는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었지요. 하여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아이가 생기면 그만둘 생각으로 아르바이트 정도만 했습니다. 빵집 · 김밥집 · 슈퍼마켓 · 보험설계사... 마음의 준비는 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등산도 가고, 한약도 먹고, 시골에 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목욕탕에서 오래오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만 기다리기보다 일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아이가 생겨도 오래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문구점을 얻었습니다. 문구점에 오밀조밀 놓인 문구류의 가격을 익히고, 어느 자리에 무엇이 있나 익히고, 자주 오는 어린이들 이름을 익히고... 그렇게 1년쯤 지나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는 빨리 낳아서 빨리 기르는 게 좋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기다리던 아이니까 그만큼 더 귀중해요. 게다가 나이 들고 더 많은 것을 배운 다음에 민정이를 낳으니까, 엄마가 더 성숙한 상태잖아요. 화도 덜 내게 되고, 더 고마워하게 되고, 민정이에겐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도 더 많은 상태니까, 저는 민정이가 늦게 찾아와 준 것도 감사하고 좋아요.”

그때 한 아이가 리코더를 사러 왔습니다. 강갑임 씨는 견출지에 아이 학년과 이름을 적어 리코더에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애들이 사용하는 물건이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 어디 두거나 섞이면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살 때 아예 이름표를 붙여줘요. 고객에 대한 서비스고, 아이들이 물건 잃어버리면 엄마들이 또 사주어야 하잖아요.

제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모두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가게도 많을 걸요.”

100원을 놓고, 났다 안 났다 실랑이를 하는 일도 생길 법 합니다.

“옥신각신하지 않아요. 100원이라도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돈이에요? 어린이나 100원이 더 소중하죠. 저보다는 그 아이에게 더 소중할 테니, 제가 양보해요. 물건을 바꾸러 오는 일도 그래요. 이 아이가 이 물건을 바꾸러 오기 전에 얼마나 망설였을까. 그거 생각해서 얼른 바꿔줘요. 저도 어렸을 때 소심해서 그런 갈등 많이 했거든요.”

문구점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 엄마의 양육방식도 짐작하게 됩니다. 기가 없는 아이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아이는 나중에 그 애 엄마가 왔을 때 보면 연락 없이 강한 엄마입니다. 종종 작은 물건을 슬쩍 주머니에 넣는 어린손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 아이 옆으로 가서 살짝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개 미안해



하며 물건을 돌려놓지요. 다른 아이들이 “이쭈마, 개한테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하고 궁금해할 정도로 살짝 말합니다. 그 아이를 바르게 가게 해주고 싶으면서도 아이가 친구를 잃을까 염려해서 그리 합니다.

갑임 씨는 일본에 갔을 때, 가이드에게 일본 학교 앞 문구점을 보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학교 앞에 문구점이 없다는 말만 들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하고 싶어요.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을 민정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좋고, 민정이가 지금 1학년인데 학교 갔다 와서 여기저기 다녀도

내가 여기서 보살펴 줄 수 있잖아요. 이쭈마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면 배우는 게 많고, 단골손님인 아이들을 보면서 사람 귀한 것도 배우죠. 대학생이 된 옛날 단골 어린이가 찾아와 아직도 하고 있다고 반가워해도 좋고...”

어쩌다 몸이 좋지 않아서 머리가 무겁다카도, 아침에 가게에 나와서 아이들의 재잘거림을 나누다보면, 어느새 머리가 맑아져 있습니다.

강갑임 씨가 가장 행복한 순간 중의 하나는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민정이



● 색연필 · 지우개 · 실내용 · 팬이 · 구슬... 피노키오 문구점에는 아이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알록달록한 물건이 많아요.

가 “아빠,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하는 말을 떨어져서 들을 때입니다. 귀여운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아빠가 있고, 나는 엄마고... 그 따뜻한 분위기가 마음에 꼭 찔다가 온 몸을 감싸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저는 원래 여행·도전·경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경험까지 다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저는 첫째 딸인데, 압전하 기만 했어요. 그런데 딸을 낳고 엄마가 되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더 넓게 보게 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용기도 생기고, 조심할 일도 생기고, 자신감도 민정이가 제게 선물해 준 거예요. 민정이가 제게 얼마나 많은 걸 선물해줬는지 몰라요.”

강갑임 씨는 세계여행을 하는 게 꿈입니다. 세계여행이 꿈이니, 저축도 열심히 하고 책도 열심히 보는데, 그렇다고 세계여행 가는 그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건 아닙니다. “모아서 나중에 간다”고만 생각하는 건 지혜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건강도 건강이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니중과 지금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갑니다. 민정이는 직접 가서 보고 느낀 건 더 잘 이해하고 오래 기억합니다.

갑임 씨는 인연의 소중함도 경험했습니다. 바지런한 아가씨이던 갑임 씨는 직장에 다니면서 우유배달도 다녔는데, 고객 중 한 할머니가 “아가씨, 내 맘에 꼭 들어. 우리 큰 손주랑 선물 좀 보구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요” 했지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났을까, 시골에 계신 엄마가 선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두 사람은 서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처음 선자리를 소개했던 할머니의 둘째 손주였습니다. “어쨌든 그 집 며느리가 될 인연이었던가 봐요.”

남편은 여자친구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어 할머니 댁에 종종 와서 자고는 아침 일찍 우유 배달하는 갑임 씨와 서서 몇 마디 나누는 특별한 데이트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하실 이야기를 만들어 드리는 게 효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성시대에 편지를 보내면 그 이야기도 나누실 수 있고, 제가 자주 찾아가면 또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시댁에 가고 친정에도 자주 가느라 바빠요. 시댁과 어렵게 지내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복이 많은 거라 생각해요. 사는 건 좋아요. 40이 넘으니 더 재미있고, 인생을 더 알 것 같아요. 몸이 힘들 때는 열심히 살고 싶었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생각해요. 병원에 입원해도 일주일 후에 나갈 수 있다는 희망만 있으면 괜찮은 거 같아요. 저 문구류처럼 알록달록한 희망거리를 생각하며 살아요.” ♥

사회에
빛이 되는 기업,
희망이 되는
기업 만든다

기업은행 김포대곶지점 고객
(주)동양밴드 홍성돈 대표

“준비된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지요? 좋은 시절에 준비하면 오히려 늦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생존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기회가 왔을 때 더욱 도약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요.”

● (주)동양밴드의 홍성돈 대표



인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한다. 심장에서 온몸으로 혈액을 나르는 혈관이 깨끗하고 막힘이 없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배관이다. 그래서 배관을 산업의 동맥이라 부른다. (주)동양밴드는 배관자재 중 파이프를 연결하는 용접용 관 이음쇠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관 이음쇠는 오일배관·가스배관·물배관·스팀·구조물 등 수요처가 다양한데, 특히 세계적인 경쟁력과 막강한 기술력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내 제품은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한다.

(주)동양밴드의 홍성돈 대표는 평생을 이 분야에 몸담은 관 이음쇠 전문가다. 첫 직장생활을 관 이음쇠 생산회사에서 시작했고, 이후 15년간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결국 제조에까지 뛰어들게 된 것. 홍 대표는 IMF외환위기로 한창 나라가 들썩이던 지난 1998년에 회사를 설립했다. 모두가 몸을 사리던 시기였기에 주변의 만류가 컸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회사에서 생산·관리·영업 등을 두루 경험했고, 대리점 운영으로 유통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에 위기 돌파에 대한 자신감은 더욱 충만했다.

“준비된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지요? 좋은 시절에 준비하면 오히려 늦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생존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기회가 왔을 때 더욱 도약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요.”

홍성돈 대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이를 극복

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힘은 어머니였다.

“3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어려서부터 그분의 눈물겨운 고생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무척 컸습니다. 어른이 되면 꼭 성공해서 효도하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맨바닥에서 시작했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강한 확신 덕분이었을까. (주)동양벤드는 그의 믿음처럼 지금까지 큰 위기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성장해왔다. 지금의 위기가 크게 두렵지 않은 것은 그만큼 어려움과 위기에 대한 내성이 강해졌기 때문이라.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불안정한 환율, 원자재 가격 급등락 등의 악조건으로 투자를 기피하는 요즘 (주)동양벤드는 오히려 설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과감한 결정은 홍 대표 특유의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에서 비롯된다.

“미래를 위한 준비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건설과 조선의 비중이 높는데, 최근 건설 수요가 줄어 타격이 큰 게 사실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직원들과 함께 힘을 하나로 모아 계획한 일들을 차근차근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전의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지난 1998년 업계 후발주자로 출발한 (주)동양벤드는 현재 중위권 회사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회사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을 묻자 홍 대표는 직원들에게 공을 돌린다.

“제가 인복이 많아요. 우리 직원들



기업은행 김포대곶지점의 김양섭 지행장(왼쪽)은 홍성돈 대표에 대해 늘 에너지가 넘치고 매사에 긍정적인 분이라고 말한다.



(주)동양벤드의 홍성돈 대표가 기업은행 김포대곶지점 직원들과 함께했다.



(주)동양벤드는 배관자재 중 파이프를 연결하는 용접용 관 이음쇠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 매사에 무척 적극적이고 열심입니다.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 직원들을 보며 저 또한 리더로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직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회사, 아침이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나가려고 합니다.”

홍 대표가 유일하게 거래하는 기업은행 김포대곶지점의 김양섭 지행장은 홍 대표에 대해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매사에 긍정적인 분”이라고 소개하며 “위기 상황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감과 뜨거운 열정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믿고 따른다”고 귀띔했다. 홍 대표 역시 기업은행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며 “대리점 사업을 시작하면서 맺게 된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 오면서 힘든 시기에 기업은행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평생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화답했다.

(주)동양벤드는 최근 일본 등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06년에는 베트남 호치민에 DY BEND VINA를 설립, 국내 동종업계 최초로 해외에 공

장을 세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아울러 KS·ISO·FM 및 각국의 내로라하는 선급 인증을 대부분 획득하며 수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관 이음쇠 분야는 우리나라 기업이 기술적 우위에 있지만, 향후 최고의 경쟁 대상국은 풍부한 내수시장과 저렴한 노동력, 원자재 등의 인프라를 갖춘 중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의 저가 제품에 맞대응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에 힘쓰고 품질을 높인다면 한국기업이 오랫동안 차별화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그는 확신한다.

홍성돈 대표에게는 젊은 시절부터 간직해온 소중한 꿈이 하나 있다. (주)동양밴드를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으로 키워 어두운 밤거리를 밝히는 환한 가로등 중 하나처럼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업, 사회의 빛이 되는 좋은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회사가 좀 더 안정기에 접어들면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다.

홍성돈 대표는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겠다"며, (주)동양밴드를 앞으로 더욱 견실한 기업으로 키울 것을 약속했다. 지금과 같은 강한 의지와 자신감이라면 그의 꿈이 실현될 날도 머지않았다. ♥

◎ 글_오인숙(자유기고가) | 사진_주병수

그의 성공에는 이유가 있다

홍성돈 대표의 성공 노하우

- ✦ **확고한 신념을 가져라** :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생활했다. 이러한 신념이 있었기에 좌절하지 않고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었다.
- ✦ **신념에 걸맞는 노력이 필요하다** : 사업이 반석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 그 중 집중력과 속도감이 중요하다. 자신의 일에 충분히 몰입하고 남보다 한 발 앞서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 ✦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꾼다** :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도 혼자서는 살 수 없다. 내 가족, 우리 직원, 이 사회와 함께하는 행복만큼 소중한 가치는 없다.



국민주택기금 행운가득 특별 event!

행사기간 2009. 03. 02 ~ 2009. 05. 29 (3개월간)

행사내용 행사기간 동안 국민주택기금대출 또는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시고 신용카드 등 추가 상품을 가입하신 고객님께 가입하신 상품수에 따라 추첨을 통해 사은품 제공

Event 1

가입상품 3개 이상 : 5만원 상당의 상품권 (100명)

Event 2

가입상품 2개 이상 : 1만원 상당의 사은품 (300명)

기본 상품

- 청약저축
- 기금대출



추가 상품

- 입출식
- 전자금용
- 적립식
- 여신 (카드론 포함)
- 거치식
- 신용카드 (체크포함)

당첨자발표 : 2009년 6월중 당행 홈페이지(www.ibk.co.kr) 및 개별통보

자세한 문의사항은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이나 IBK고객센터(1588-2588)를 이용해 주십시오.

여자라서 행복하게 만드는 주얼리 브랜드 '프리마베라'

국내 패션주얼리 선도기업 밀레니엄영우

여성용 패션주얼리 전문기업 밀레니엄영우(www.oberoy.com) 대표 : 안영국)는 화사한 봄에 어울리는 프리마베라 신상품을 출시, 30~40대 커리어우먼과 세련된 패션 감각을 지닌 40~50대 여성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다수의 전문 디자이너들이 지속적인 해외 시장조사와 국내 고객들의 취향분석을 통해 트렌드를 반영한 신선하고 독창적인 디자인 상품을 계속 내놓고 있으며, 제품마다 묻어나는 세련된 세팅기술은 명품 주얼리를 지향하는 밀레니엄영우의 장인정신과 고객사랑정신을 느끼게 한다.

홍콩 보석전시회 등 매년 국내외 보석전시회를 통해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파인주얼리에서나 볼 수 있었던 마이크로 파베세팅을 패션주얼리에 적용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봄에 잘 어울리는 컬러풀하고 화려한 제품들과 밀레니엄영우만의 탁월한 디자인 감각과 제조 노하우가 녹아 있는 진주제품 등은 어느 것 하나 눈길



을 땔 수 없을 만큼 돋보인다.

MBC와 KBS TV 협찬을 통해 각종 드라마에서도 목걸이·귀걸이·팔찌·브로치 등 다양한 프리마베라주얼리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 미국·이탈리아·프랑스 등 전 세계 20여 개국에

수출돼 2008년도에는 100만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영광도 누렸다. 또한 국내에서도 프리마베라 브랜드로 이미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킨 바 있다.

2007년 10월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을 받았고, 2008년 12월엔 중소기업청에서 품질 수준을 인증하는 '싱글PPM' 인증을 받아 디자인뿐만 아니라 품질면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남대문 미로 매장과 CJ몰, GSe-shop 등 인터넷몰에서 프리마베라 주얼리를 접할 수 있다. 밀레니엄영우는 고객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전문사이트 운영을 계획 중이다.

- 기업은행 남대문지점 거래기업
- ㈜밀레니엄영우(www.oberoy.com)
- ☎ 상담전화 : 02-777-0544

기업은행에서 추천하는 우량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코너로, 위촉된 중소기업의 경기 활성화에 다소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시대 꾸러미

• 내지 일러스트 박지현



임신에서 출산, 육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를 기르는 이야기 <출산에서 교실까지>, 남성들의 땀과 인쇄 그리고 우정을 이야기하는 <장용의 단결! 필승! 충성!>, 잊을 수 없는 그 시절, 잊을 수 없는 사랑 이야기 <사랑의 계절>을 함께 만나보세요. 매주 월요일 <출산에서 교실까지>, 목요일 <장용의 단결! 필승! 충성!>, 토요일 <사랑의 계절>이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 꾸러미 하나
출산에서 교실까지
내 손으로 받은 세 아이
정희주 님

● 꾸러미 셋
사랑의 계절
친구와 연인 사이
고기옥 님

● 꾸러미 둘
장용의 단결
공장을 점령하라
이주식 님





내 손으로 받은 세 아이

● 글_정희주 | 경남 창원시 상남동

세 나이 올해 51세로, 경남 창원에 사는 남성입니다. 제가 24세 때, 인천에서 잠깐 직장생활을 했는데, 그때 22세의 예쁘고 날씬한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경남 하동군 청암면의 청학동 인근마을, 그야말로 첩첩산중에 있는 고향집으로 가서 어머니 모시고 어린 동생들과 농사지으며 함께 살았습니다.

26년 전, 산골짜기 저희 집은 조그만 부엌과 아궁이에 나뭇가지로 불을 지펴 밥을 지어먹고 졸졸졸 흐르는 개울가에 가서 양동이로 물을 길어 머리에 이고 왔으며, 고구마·감자·보리밥이 주식이었습니다.

22세의 예비엄마는 새벽에 일어나 동생들 밥해 먹여 학교에 보내고, 24세의 남편을 따라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또 만삭의 몸으로 험한 산골짜기의 오르막 내리막길을 바구니에 하나 가득 점심밥과 새참을 이고 나르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각시가 먹고 싶은 건 오직 튀김닭. 그토록 먹고 싶어했는데, 무심한 저는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51세가 된 지금도 철이 없는데, 아이만 만들 줄 알았지, 24세 머슴아가 될 알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마음만 아플 뿐입니다. 통닭을 먹으려 해도 하동읍에나 가야 먹을 수 있었고 잘해야 한 달에 한번 정도 외출을 하는데, 버스 타는 곳까지 30분 정도 걸어서 버스를 타면 읍내까진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루는 각시가 그토록 먹고 싶어하던 통닭을 먹게 됐지만 한 마리로는 젊은 우리 두 사람의 양을 채우기엔 너무 부족했지요. 3마리 정도는 먹고 싶었으나 닭집 이지매의 눈빛이 부끄러워 2마리 반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1984년 음력 7월 29일, 소먹이 풀을 베어 집에 오니까 각시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집안에 찌렁찌렁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악, 아이구 엄마! 아, 악, 악.”

각시는 혼자 고통을 호소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하동읍내 시장에 가셨고, 동생들은 학교에 가고 없었기 때문에 신랑한테 연락할 수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집은 마을과 2.2킬로미터 떨어진 외딴집이었습니다.

각시는 내 손을 꼭 잡고 정말 꼼짝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두 시간여의 진통 끝에 예쁜 첫딸을 낳았습니다. 출산 마무리는 시장에 갔다오신 어머니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24세 아빠와 22세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어느덧 둘째아이는 하동의 명물인 삼진가 강변 백사장 옆 송림유원지에서 태어났습니다.

1986년 3월 22일, 한창 꿈나라로 가 있던 나는 뭔가 신음소리가 들려 깨어보니 아내가 신음소리를 내며 “오빠, 나 얘기 낳으려 나봐” 하였습니다. 1시간 30분여의 진통 끝에 예쁜 둘째를 낳았습니다. 나는 미역을 깨끗이 씻어 참기름에 다글다글 볶아 맛있게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각시가 태반을 낳



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이웃집 아주머니께 말씀드렸더니, 태반을 빨리 안 낳으면 뱃속에서 달라붙어 산모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모에게 남자모자를 쓰게 하면 태반을 빨리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예비군모자를 산모에게 씌워놓고 약 3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산모가 애기를 낳고 태반을 낳지 않는데, 약이 있느냐?”고 물으니 40대 중반의 여약사는 아주 걱정스러운 얼굴로 “태반을 낳게 하는 약은 없다며 빨리 택시를 불러 진주의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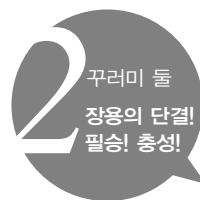
나는 미련하게도 택시를 안 타고 달려와 보니 각시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오빠, 어떡해?” 하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나는 각시의 손을 꼭 잡고 “괜찮을 거다. 걱정 말거다. 택시를 불러왔으니 진주 큰 병원으로 가보자”며 각시를 부축해 일어나는 순간 그토록 기대하던 태반이 쭈욱 나왔습니다. 그 태반을 낳는 시간은 몇 초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 후에도 셋째를 자연분만하였고, 또 아빠인 제가 다 받아냈습니다. 어린 각시는 딸 셋을 집에서 나이 어린 신랑하고 자연분만하고 모유만 먹고 키웠습니다. 두 살 터울인 딸 셋은 26세, 24세, 22세로 너무나 예쁘게 자라주었습니다.

각시는 애기를 낳는 그날까지 농사일을 도우며 산골길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열심히 일한 것이 자연분만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립니다.

저희 부부, 어머님 모시고 딸 셋과 알콩달콩 잘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 몇 달 쉬면서 열심히 운동(등산)하고, 약 먹고, 치료를 하는데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예쁜 내 각시 김임순 여사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해! 그리고 너무 예쁜 우리 세 딸, 사랑한다.’ ♥



공장을 점령하라

● 글_이주식 |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20년 전인 1989년 2월, 지금은 없어진 지 한참 되었지만 한동안 예비역들에게 회자되었던 팀스피리트 훈련. 보병부대 훈련이 한번 나가면 보통 6일 정도 야전생활을 하는데 팀스피리트 훈련은 이동에서 복귀까지 약 20일이 걸립니다.

그 당시 훈련 중 가장 규모도 크고 부대 작전지역이 아닌 멀리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여 낮은 지역에서 공격과 방어훈련을 하게 되니 그 준비과정 또한 길고 상당히 힘듭니다.

전방 모 역에서 기차를 타고 밤새 내려가 충북 증평에 도착해 하루종일 행군하여 숙영지에서 며칠 동안 방어훈련을 하고 드디어 강원도까지 행군...

원래 공격 훈련이라는 게 폼 나게 총도 쏘면서 고지도 점령하는 줄 아는데 저희 같은 일반 보병들은 무조건 행군입니다. 그러다가 점령할 고지가 나타나면 무조건 뛰어 올라가 참호를 파고 시주경계하면 상황 끝이죠.

전방 쪽은 민간인보다 군인이 많은지라 부대 근처 민간인들은 우리를 봐도 그냥 무덤덤하게 군인들 지나가는구나 하고 시큰둥하지만 충청북도만 해도 작전중인 군인들을 보기가 드문지 지나갈 때 손도 흔들어주고 집에서 물도 떠와 마시게 하고 수통에 채워주시기도 했습니다.

힘들지만 마치 전쟁터에서 무사히 복귀하는 아들 대해주는 듯한 어른들의 환영(?)으로 힘든 것도 잊어가며 며칠을 행군해 모 지역에 주둔해서 휴

식을 취하고 있는데, 새로운 작전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야산을 점령하여 아군 이동로를 확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루 4시간도 못하면서 며칠째 행군해 와서 과묵치가 되었지만 군대라는 게 까라면 까야죠.

다른 중대원들의 위로 아닌 위로를 받고 중대 고참들의 투덜거림을 함께 하며 다시군장을 짊어지고 행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 목표고지 근방까지 도달한 우리 중대는 각 소대별로 좌측 우측을 맡아 조용히 목표고지로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밤이 되고 훈련이 이상 없이 진행되는데 가장 앞에 섰던 3소대장으로부터 다급한 무전이 날아왔습니다.

“공격 침투로에 답장이 있다.”

중대장님도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잘못 왔나?’ 플래시 불빛에 몇 번이나 다시 지도를 확인하고, “여기 맞는데?” 하더니, “전 병력, 현 위치 고수” 명령을 내리고 화기소대원들과 직접 고지를 올라갔습니다. 우리 중대장님은 다른 건 몰라도 독도법 하나는 자타가 공인하는 분입니다.

한 15분쯤 올라갔을까. 산에 포장된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그냥 그 길 따라 쪽 올라가니, 고지 정상에 불이 환히 켜져 있었습니다. 중대장님은 침착하게 전 중대원들 도로로 집결시키고 100여 명이 되는 병력이 줄맞추어 올라갔습니다. 그곳엔 규모가 꽤 큰 전자회사 공장이 자릴 잡고 있었습니다. 회사 경비원이 뛰어나오고 책임자 되는 분도 뛰어나오고... 모든 면에 FM인 우리 중대장님, 신속하게 병력 배치부터 했습니다.

“좌측 1소대, 우측 3소대, 중앙 2소대, 화기소대 후방. 개인호 파고 사주경계 후 다음 명령을 기다린다. 이상!”

이때 2소대장이 힘없는 소리로 “저기 중대장님, 여기 콘크리트 바닥이라 개인호를 못 파는데요.” 여기저기서 중대원들이 키득키득거렸습니다. 중대

장님도 상황을 보니 이건 아닌지라 “그럼, 사주경계하라!” 하고 정정된 명령을 내려보냈습니다. 일단 병력을 공장 구석구석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때 회사 사장님이 나오시더니, 약간 겁먹었지만 당당한 목소리로 “무슨 일입니까?” 하고 당황스러운 듯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중대장님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군 작전중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완전무장한 군인 100여 명이 회사로 쳐들어와 작전중이라나... 우리 중대장님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분명 야산에 매복 작전을 하러 왔는데, 뜬금없이 공장이 있다니...

저도 바빠졌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상급부대로 무전을 쳐야 하는데, 중요상황이라 평어가 아닌 음어로 무전을 날리니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나중에는 상급부대에서도 답답한지 무전기에 대고 소릴 지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살며시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공장이 전자부품회사라 관리직 몇 명을 빼고는 직원들이 우리와 비슷한 또래의 아가씨들이었습니다. 2교대 작업인지 꽤 늦은 시간인데도 어림보아도 100여 명이 넘는 아가씨들이 일하는데 시커멓게 위장한 군인들이 중화기를 메고 들어오니, 완전 공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허수아비에 치마만 입혀놔도 눈이 돌아가는 군인들이, 민간인 그것도 꽃다운 아가씨들이 바글거리나... 우리 중대원들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안 씻기로 소문난 3소대 최 병장은 바로 수통의 물로 세수를 하고, 입대한 지 3개월도 안 된 이등병도 동전으로 군복 바지의 주름을 잡았습니다. 작전이고 뭐고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 소리 지르던 공장 아가씨들도 한두 명씩 나와 까르르 웃고...

그때 몇 대의 군용 지프가 속속 도착했습니다. 상급부대 참모들, 통제관들... 뒤늦게 연락받고 오신 분들이지요.

상황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번 이동로가 원래 계획에 없던 길이라 사전 지형정찰이 안 되었고, 우리 중대로 지급된 지도가 2년 전 것이라 일 년 전에 야산을 밀어버리고 세운 이 공장이 지도상에는 표시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전시상황도 아니고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없고 하니 우리 중대는 일단 철수를 하여 공장 정문에서 100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산개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화젯거리는 공장 안에 있는 아가씨들이지요. 파곤에 찌든 얼굴은 어디 가고 모두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중대 고참들은 어떻게 하면 아가씨들에게 연락처를 줄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종료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사장님이 아들 같은 군인들이 고생하는 게 안쓰럽고 잠시나마 화낸 게 미안하셨는지 회사식당에 컵라면을 준비해왔다고 회사로 막무가내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대장님은 극구 사양하는데, 회사 사장님 반협박에 결국 100여 명이 나 되는 중대원이 식당에서 컵라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비록 컵라면이지만 보름 가까이 산에서만 지냈던 우리들에게는 상감마마의 9첩 반상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컵라면만 먹고 나오면 대한민국 육군이 아니지요.

“군인아저씨, 그거 진짜 총 맞아요?”

“우리가 영화 찍는 엑스트라인 줄 아시나? 전부 진짜 총입니다.”

“아저씨, 낙하산도 타봤어요?”

“아, 낙하산요. 오늘 아침에도 그거 타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뽕을 섞어가며 흐뭇한 시간을 보내고 부대 주소를 적어주고 꼭 편지하라며 작업 아닌 작업을 하고 철수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때 사장님이 끓여주신 컵라면 맛을 잊을 수가 없네요. 아마 지금쯤은 더 큰 회사로 발전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중대는 색다른 경험에 더욱 훈련을 열심히 해 좋은 성과를 내서 연대에서 포상휴가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



친구와 연인 사이

● 글_고기옥 | 광주시 서구 치평동

딸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책장 맨 위에 먼지 수북이 쌓인 제 학창시절 앨범들과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다락에 묶여 있었는데, 겨우 딸아이의 책장을 빌어 자리를 잡은 것들입니다. 훑어두기만 했지 열어보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먼저 자물쇠가 채워진 일기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때는 열쇠를 채우는 일기장이 유행해 저 또한 그런 일기장을 썼습니다. 그런데 열쇠는 어디로 가고 없었습니다. 한참을 손으로 당겼다 밀었다 써름하다가 결국 펜치로 자물쇠를 뜯고 펼쳐 보았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붙어 있는 용모 단정한 남학생 학생증 사진 한 장. 빛이 바랜 것인지 처음부터 흑백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진을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쓴 일기였습니다. 일기의 대부분은 남자친구의 알파벳 이니셜 'J'를 사용해 사소한 일들을 고백하는 느낌이나 대화 형식으로 썼더라고요. 그 친구는 고향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녔고, 저는 작은오빠와 함께 자취하며 광주에서 학교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어느 날, 짝꿍 영애가 하얀 편지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진복이가 너한테 주라는 편지여. 누가 볼지 모르니까 얼른 넣어.”

편지 내용은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그 편지를 받은 날부터 같이 뛰놀던 친구가 갑자기 남자로 보이게 되고, 그와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광주로 가기 하루 전날 해질 무렵, 짐을 꾸리고 있는데 그 친구의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대문 밖에 나갔다 오더니 “누나, 영국이가 누나 찾는데?” 하기에 “그래? 뭐 일이지” 하며 대문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 친구 동생은 제게 무언가를 건네며 “형이 갖다주라고 했는디”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른 받아 들고 방에 들어와 펴보니, 비누 3개가 편지와 함께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저도 선물을 하긴 해야겠는데 줄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뒤지다가 껌이 한 통 있더군요. 저는 껌과 함께 색종이에 “우리 껌처럼 오래오래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학으로 접어 제 동생을 불렀습니다. “이거 진북이한테 갖다줘. 학은 꼭 풀어보라고 해 알았지” 그러면서 사랑의 전령사인 동생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짝꿍이 편지를 전달해주는 집배원이었고, 중학교 때는 동생들이 사랑의 전령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받은 비누는 차마 사용하지 못하고 가끔 ‘쿵쿵’ 향기를 맡아보는 용도로 아주 오랫동안 책상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추석 명절에 시골집에 내려갔는데 밝은 달 아래에서 친구들과 과 놀다가 어찌다 보니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을 때는 웃고 떠들던 우린 어색한 남녀 사이가 되어 무작정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둘만 남으니 편지는 항상 주고받았지만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날 밤 동네를 몇 바퀴 돌았을까요. 피곤해서 그냥 헤어졌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20년 만인 지난 겨울, 친구들 모임에 마침 예식장에 올 일이 있어서 그 친구가 내려와 모임에 참석한다는 얘기를 일주일 전에 들었습니다. 설렘에 밤이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어떻게 변했을까? 똥똥할까? 아니면 키가 훗칠해졌을까? 온갖 잡생각에 머리만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첫마디 “잘 있었는가. 자네도 많이 늙었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 늙는 만큼 나도 늙제.” 그러면서 우린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가슴이 콩닥거리고 눈을 제대로 못 맞추겠는 겁니다. 이젠 스스럼없는 아줌마·아저씨가 됐는데도 알 수 없는 이 감정은 도대체 뭘까요.

모임이 끝나고 그가 와인 한 병을 선물해주더군요. 집에 가져와 늦게까지 저를 기다리고 있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함께 마셨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남편이 “그 모임은 와인도 주나?” 하더군요. 저는 시치미 뚝 떼고 “서울에서 오랜만에 내려온 친구가 한 병씩 선물로 줬는디, 마실만 하제” 하고 대답했습니다. ‘친구, 자네 덕분에 우리 부부 오붓한 시간 보냈네. 고맙네.’ 저는 마시며 속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번은 있을 법한 가슴 아프고 불꽃 튀는 정열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사춘기를 무사히 넘기고 성인이 될 때까지 잔잔하게 가슴 일렁이게 하는 풋풋한 감정이 있습니다. 손 한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던 너무나 소극적인 감정이고 돌아보면 아쉬움도 조금 남지만, 생각해보면 약간은 상기된 얼굴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



우리 집 아침 풍경

우리 집의 기상 시간은 좀 늦은 편입니다. 저와 아내의 출근시간이 오전 9시 30분이고, 아이들의 등교시간이 8시 40분인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넘어지면 코 닿을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7시 40분쯤 일어나지만 8시가 다 되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밤 12시를 넘겨 잔 경우입니다. 전날 학교숙제에 학습지까지 하다보면 12시 이전에 자는 날이 손을 꼽을 정도지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두 녀석이 무슨 할 말이 많는지 종알 종알 재잘재잘 심 없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옵니다. 몇 번을 자라고 잔소리를 해야 겨우 조용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와 제 역할이 정해져 있지요. 아내는 일어나자마자 전날 밤 앉혀놓은 압력밥솥이 올려져 있는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고는 씻습니다. 뜨거워진 압력밥솥이 거친 숨을 푸푸 내쉬면 저는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고 아이들을 깨웁니다.

한 번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두세 번을 깨워야 딸이 부스스한 얼굴로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도 아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결국 이불을 제키고 엉덩이를 툭툭 두드리며 목소리 톤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일찍 자라고 했잖아? 얼른 일어나요"

"아버지, 그렇게 무섭게 말고, 부드럽게 깨워주세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부드럽게 깨웠거든요. 명종이가 안 일어나 그런 거거든요."

"그래도 부드럽게 깨워주세요."

참 어이없는 아들입니다. '부드럽게' 깨울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아버지의 목소리 톤이 좀 높아지니까 그걸 문제 삼습니다. 아이들이 씻는 동안 저는 아이들의 물통과 수저를 챙겨 책가방에 넣어주고, 아내는 아이들이 입고 갈 옷을 챙겨줍니다. 제가 간단한 아침식탁을 차려 아이들과 밥을 먹고 나면 아내는 딸아이의 머리를 따줍니다. 저는 아이들과 같이 출근하고, 아내는 어질러진 집안을 치우고 출근합니다.

며칠 전 일입니다. 그날은 아이들이 먼저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출입문 번호 키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울음소리가 비집고 들어오니,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책가방을 놓고 갔어요. 엉엉."

싸움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을 놓고 간 셈입니다. '에구, 한심한 아들!' 아들은 현관에 있던 책가방을 들고는 후다닥 뛰어나갔습니다. 닫힌 문틈에 아들의 울음소리가 끼었다가 잘립니다. 시계를 보니 8시 35분, 40분까지 등교이므로 지각은 아닙니다. 저는 혹시 하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나타난 명종이는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뛰어가더군요. 건물 사이로 사라졌던 아이가 다시 학교 현관 앞에 나타났고, 아기가 현관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서야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아내의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들 가고나면 확인 좀 하지 그랬어요?"

"어이쿠, 저도 아침에 바빠요."

이어지는 아내의 잔소리를 뒤로 하고 서둘러 출근을 했습니다.

아들이 책가방을 놓고 간 이틀 후, 그날도 아이들이 먼저 나갔습니다. 저도 출근 준비를 다 한지라 바로 따라 나가려는데, 덜렁이 아들이 이번에는 신발주머니를 놓고 나갔더군요. 신발주머니를 들고 급히 따라가니, 아이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주머니를 뒤에 숨기고 물었습니다.

"아들, 뭐 놓고 온 거 없나요?"

“네! 뭐요?” 어깨를 으쓱 하며 손을 들던 아들이 제 손에 신발주머니가 없다는 걸 눈치 채고는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뒤에 숨겼던 신발주머니를 슬그머니 보여주자 아들이 ‘헤’ 하고 웃었습니다. 아들은 큰소리로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며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아들은 만원 엘리베이터 안에 서도, 학교에 가는 내내 제 손을 잡고 놓지 않더군요. 아들의 손을 통해 전해져 온 따스함 때문에 하루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퇴근을 해 집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싸아!’ 했습니다.

“명중이가 글썽! 이번에는 학교에서 일기장을 안 가져왔어요. 숙제를 해야 하는데... 당신이 아침 일찍 명중하고 같이 가서 가져오세요.”

누구의 명령인데,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날 아침 7시, 아들을 깨워 학교에 갔습니다. 교실 자물쇠는 번호는 맞추는 것입니다. 명중이가 자물쇠를 열기 위해 끄끙 댔습니다. 번호는 알고 있었지만 번호 순서와 어디에 그 번호를 일치시켜야 하는 줄 몰랐던 것입니다. 혼자 보냈으면 교실 앞에서 엉엉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기장을 가져와 전날 써놓은 일기를 순식간에 옮겨 적었습니다. 학교에 갈 준비를 다 끝낸 시간이 7시 50분. 평소 일어나던 시간에 학교에 갈 준비를 끝낸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사고 위험 때문에 8시 이전에 등교를 금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풍족해진 아침 시간에 아이들이 여유만만이었지요.

“일찍 일어나니까 정말 좋아요. 우리 내일도 7시에 일어나요?”

저는 전날 늦게 자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탓인지 머리가 ‘땡’ 하더군요. 8시가 넘어 아이들과 같이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아차!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온 것입니다. 정신없기는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입니다. 달령이 부자 때문에 우리 집 아침은 참 정신이 없습니다. ♥

● 김정수 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매를 둔 아버지로,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글로 써 매체에 기고하고 있는 시인이다. 시집으로 〈서랍 속의 사랑이〉 있으며, 책 만드는 것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조그만 넓은 아버지다.

괜찮아! 아무려면 언제, 쉬면서 하렴

올해 대학에 입학한 큰딸이 설악산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다녀왔다. 2박 3일 동안 무척 즐거웠던 모양이다. 신입생을 가장한 선배들의 깜짝쇼도 재미있었고, 친구들과의 대화도 즐거웠단다. 사실 아빠는 은근히 걱정했다. 선배들에게 폭탄주나 받아먹고 망가지는 것은 아닌지 하고 말이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나름대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온 듯해서 내심 안도했다.

고등학교 역시 입학식 전 2월 하순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그런데 대학의 그것과는 분위기가 한참 다르다. 신입생들은 강당에 모여 학사 일정·생활규정·성적 처리·포상 규정·징벌 규정 등의 설명을 듣는다. 아이들은 마치 3년 동안 지나야 할 컴컴한 터널 앞에 선 기분인 듯 어깨를 움츠리고 냉기 가득한 비단만 내려다본다.

3월 2일, 입학식. 학생들은 대부분 깨끗하게 이발을 했고, 교복을 입었다. 더러는 입학 전에 기른 긴 머리가 그대로인 아이들도 있지만, 며칠 못 갈 것이다. 두발규정을 내세운 가위 공세를 막을 힘이 없으니, 앞머리를 썩둑 잘린 몇몇 아이들은 눈시울을 붉히고야 말 것이다. 두발규제는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가 판정해도 학교는 별로 귀 기울이지 않는다.

3월 9일, 벌써 여러 날째 등교하지 않는 신입생들이 있다.

칠수는 머리 자르는 학교에 가기 싫었다.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해야 하는 것도 너무 싫고, 성적 경쟁도 자신이 없다. 답답한 마음에 며칠째 집에 틀어박혀 컴퓨터 게임만 했다. “야, 이 못난 놈아!” 보다 못해 아버지가 울화통을 터뜨렸다. 야단을 맞은 칠수는 눈이 붉어지다가 싫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다 죽이고 싶어!” “...” 칠수 아버지는 망연자실했다. 이튿날 아버지는 아들의 자퇴 수속을 밟았다.

인창이는 특성화공업고등학교로 진학하겠다고 전부터 부모에게 졸랐으나, 아버지의 반대로 인문계 학교에 온 경우다. 인창이도 칠수처럼 학교에 적응하는 일이 두

려웠다. 학교가 거대한 수용소처럼 느껴졌다. 인창이는 학교에 가는 척하고 매일 PC방에서 지냈다. 결국 검정고시로 대학에 가기로 결정하고 학교를 자퇴했다.

역시 자퇴 수속을 밟은 수진이는 경우가 좀 다르다. 가족 모두의 찬성으로 홈스쿨링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홈스쿨링 프로그램은 지방의 어느 교회 주도로 진행한단다. 자퇴하러 온 수진이나 어머니나 모두 밝은 표정이다. 수진의 눈은 총기로 반짝반짝 빛나고, 입가의 미소는 아주 편안해 보인다.

“쉬운 선택이 아닌데, 가족 모두의 뜻이 그렇다니 잘 되리라 믿습니다. 틀림없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진이가 자퇴 수속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어느 선생님이 뒤쪽지에도 한 마디를 붙인다.

“부모가 바보 아니야? 종교에 미쳐서 학교교육을 포기해? 저런, 쫓쫓.”

학교가 모든 학생들을 바람직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지레 종교 탓일 거라고 간주하고 뒷말을 하는 이 선생님의 모습에서 배타적이고 경직된 학교의 모습을 본다.

몇 년 전에 호주로 유학을 간 아이의 편지 글이 생각난다.

‘선생님, 여기서 학교 다니는 것이 무척 즐거워요. 이번 학기에 체육 선택 과목으로 승마를 했어요. 다음 학기에는 요트를 할까 생각중인데요.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와 비교하면 꿈같은 일이에요. 보충수업도 없고, 야자도 없고...’

우리네 학교도 한때 그랬다. 보충 수업도 야간 자습도 없던 시절, 아름다운 청춘을 노래하던 알개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부모들의 욕심이 학교를 보냈다. 내 자식 공부 많이 시켜서 일류 대학 보내달라고, 내 기억이 맞다면, 1970년대 후반쯤일 것이다. 학교는 부모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보충 수업, 야간 자습이라는 특별 식단을 내놓았다. 공부 많이 시킬 테니 걱정 마시라고, 하여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은 밤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다. 무한 생



존경쟁의 밀림으로 내몰린 아이들. 안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작부터 8시간 이상의 공부 노동을 금지하고, 대신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교육력을 모아야 했다. 그저 잡아두고 공부만 시키면 된다는 발상은 얼마나 무모한가. 문제풀이를 시키는 동안 아이들의 체력은 바닥났고, 정서는 메말랐다. 지금은 100미터를 15초 이내에 달리는 남학생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는가? 타인에 대한 배려나 문학적 감수성을 보여주는 학생이 드물다는 사실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아이가 남보다 잘하기만을 바라지 말자. 아이가 공부에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데, 옆집 아이와 비교하며 상처주지 말자. 상처가 깊어지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압박대처처럼 조여 오는 강박 탓에 제 수명도 못 살고 떠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괜찮아, 아무려면 어때, 쉬면서 하렴. 아이들이 힘을 내게 하는 보약은 부모의 이해와 위로다. ♥

● 신규진 씨는 '자기 존중감을 살리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싶어하는 서울 경성고등학교 과학, 상담 교사, 상담 경험을 <7년하다고 실망하는 아이는 없다> 등의 책으로 엮었다.

부부도 봄맞이 합시다



봄바람 따라 남도에 갔다가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더 붙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겨울에도 봄처럼 살았겠거니와 봄에는 정녕 만물이 소생하듯 사람들을 챙기고 거두니 곁에서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신분의 심 선생. 그는 나와 동갑이라며 펄쩍 반겼습니다. 자기네 고장에서는 갑장을 만나면 일어나서 악수하는 것이 상례라고 손까지 덥석 잡았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 25년차인데 지금까지 아내와 한 번도 싸우지를 않았답니다. 그 비결을 물어보니 결혼 초기에 책에서 읽은 내용을 실천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무슨 책인지 궁금했는데 듣고보니 부부생활 전문서적도 아니고 어느 잡지에 실린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아내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편의 유형은? 시장갈 때 장바구니 들고 따라나서주는 남편.’

그날 이후 그는 아내가 장에 가자

고 하면 기꺼이 바구니 들고 앞장섰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가는 장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두어 번 가는 것이니 마음먹기에 따라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그 효과는 아주 컸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늦깎이 대학생이 된지라 평일에는 좀처럼 시간을 낼 수 없었지만 아내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사실 여자들 입장에서는 무거운 장바구니 드는 돌쇠를 동반하는 썸인데다가 그날 장보는 돈을 뭐를 사든 내 지갑에서 나가니 부담이 없잖아요. 장바구니 한번 들면 보름은 약효가 가나봐요.”

심 선생은 그 지역의 소문난 마당발에다가 공부욕심도 많아 이런 저런 공부에 사회활동을 하느라 평일에 늦게 들어가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 역시 불만 없기로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니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비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간단해요. 저는 딱 두 날만 챙깁니다. 아내 생일과 결혼기념일. 꽃 한

송이로 시작한 결혼기념 일은 이제 스물다섯 송이가 되었구요, 스물네 송이로 시작한 생일은 마흔이홉 송이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자꾸만 꽃 말고 돈으로 달라고 하지요. 금방 시들어버릴 꽃을 뭐 하러 주냐고요. 그래도 저는 꾸준히 꽃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고지식하게 꽃만 들고 갔냐 아니더라고요.

“월급은 고스란히 차압당하니 ‘뽕뽕’을 조금씩 칠 수밖에요. 티 안 나게 하느라고 1년을 모았습시다. 작년에는 성과급을 받았는데 거기서 좀 많이 뽕을 떼고 갖다줬어요. 그 돈을 생일에 봉투에 담아주면서 단서를 달았습

아내를 위해 피를 내는 이 마음, 그것이 부부 사이를 좋게 만드는 비결이었습니다. 심 선생은 말합니다. 좋아서 한 결혼이고, 같이 안 살 것 아니면서 성격차이 운운하며 앙양불락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내가 상대에게 조그만 것을 꾸준히 베풀면 그것을 의지가지로 삼아서 서로 믿는 마음이 생긴다고.

“사람, 다 거기서 거기에요. 특별히 좋은 짝 만나서가 아니라 노력하기 때문인 거지요.”

내가 소개하는 아름다운 또 한 사

람은 여자입니다. 30대 중반의 이씨 부인. 그녀는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며 아파했습니다.

금슬이 좋은 줄만 알았던 부모님에게 깊은 골이 있었음이 드러난 것은 그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였다고 합니다.

돌아가실 무렵 어머니는 이씨 부인에게 두 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암에 걸린 것은 너희 아버지 때문이다. 나는 활동적이라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너희 아버지가 훼방을 했다. 나는 자식들을 생각해서 참고 살았지만 늘 억울했다. 너도 보아하니 내 기질을 닮았다. 아이들이 어려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차 네가 평생 할일을 찾아서 죽을 때까지 하고 살라. 안 그러면 너도 나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절대 너희 아버지 집안의 묘소에 묻지 말고 화장해서 내 어릴 적 놀던 고향 뒷동산 나무에 묻어다오.”

이씨 부인의 아픔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마치자마자 아버지가 어머니 살림을 싹 내

다 치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것은 어떤 것도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섬섬함보다는 아버지도 엄마처럼 힘들었구나 하는 연민이 느껴졌어요. 부부 사이는 감추고 말 안 해도 정말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나봐요. 두 분이 평생 자식들 때문에 고통 속에 부부로 살아오셨구나 생각하니 두 분 다 가엾고 죄송하고…”

그는 끝내 울고 말았습니다.

봄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서 새싹들이 돋아납니다. 마른 나무에 새파랗게 물이 차올라 있습니다. 우리네 부부 사이도 봄맞이를 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작은 마음을 내고 상대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도와주고, 그러면 사람 사이에도 파랗게 물이 오르고 새싹이 돋지 않겠어요? 노력해 봐요. 오늘부터 꾸준히 하… ♥

● 오숙희 씨는 개인 상담소 ‘해심터’를 운영하며 방송과 강연, 집필 등 대중적인 여성학자로 활동중이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서 어떤 결혼이, 어떤 만남이 더 성숙한 결혼 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땅과 바다가 전하는 봄맛

이달의 요리는 도다리 썩국과 유채나물 된장무침
(2009년 3월 13일 방송)입니다. 봄 도다리, 여름 장
어, 가을 전어, 겨울 물메기라는 말이 있듯 봄철 생선
의 으뜸은 도다리입니다. 도다리 썩국은 경남 통영 등지에
서 맛볼 수 있는 계절 별미입니다. 땅에서 나는 썩과 바다에서 나는
도다리가 만나 달콤쌉쌀한 봄맛을 전해주지요. 그런데 도다리와 광어를 구별하는 방
법을 아시나요? 두 물고기는 같은 가자미목으로 몸이 납작하고 지느러미가 비슷해
쉽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혹시 '좌광우도'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꼬리지느러미를
잡고 들어 올려 밑에서 봤을 때, 눈이 왼쪽으로 쏠려 있으면 광어, 오른쪽으로 쏠려
있으면 도다리랍니다. 또 이빨이 있고 입이 크면 광어, 이빨이 없고 입이 작으면 도다
리랍니다. 자, 그럼 땅과 바다의 봄맛 속으로 떠나 볼까요?

봄이면 방과후 소쿠리와 칼을 가지고 들로 나가기 바빴습니다. 시골 5일
장이 다카오면 하루 전 언니들과 동생들을 데리고 들로 나가 봄나물을 캐러 다
녔거든요. 다음날이면 한가득 봄나물을 가지고 어머니 시장 길거리에 나물들
을 늘어놓고 파셨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길거리에서 나물을 파는 엄마를 만날
까 일부러 빙 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주
기 싫었거든요. 엄마는 나물을 다 파시면 언제나 풀빵을 사들고 오셨습니다. 그
러나 다 팔지 못한 날엔 빈손으로 돌아오셨고, 그날 저녁엔 남은 봄나물로 국도
끓이고 나물도 무쳐먹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금 시장에 나가면 길거리
에서 나물을 파시는 할머니들을 볼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납니다.

- 손수자님

봄햇살이 따사롭게 아지랑이를 만드는 시절,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들
로 산으로 다니며, 쭈 · 냉이 · 달래 · 씀바귀를 캐다. 봄나물이 시들해질 무렵,
고사리가 조그만 조막손을 살짝 내밀었다. 오늘처럼 비가 내린 후에 산에 오르
면, 더 많았다. 고사리는 쭈이나 냉이와 달리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 언덕을 오르다가 굴러 떨어지기도 했다. 하루는 엄마와 멀리 떨어진 상태
에서 미끄러져 골에 빠져버렸다. 엄마를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엄마는 오시지
않고, 높아 빠져나오지도 못해 울다보니 목소리까지 다 쉬어버렸다. 혼자 올라
지쳐 깜빡 잠이 들었는데,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엄마의 목소
리가 너무 반가워 울면서 “엄마, 나 여기 있어” 하고 부르니, 엄마가 오셔서 꺼
내 주셨다. 고사리 언덕이 생각난다.

- 김혜숙님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방앗간을 하셨습니다. 봄이면 엄마는 저희 네
자매 손에 바구니와 작은 칼을 쥐어주셨어요. 썩을 캐오라고요. 제일 많이 캐온
사람한테는 쫄쫄한 인절미를 상으로 주셨습니다. 저희 네 자매는 인절미를 먹
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썩을 뜯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가장 어렸던 저는 언니들
을 따라 잡을 수 없었고, 한 번도 인절미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저희
가 썩을 뜯어오면 그걸로 맛난 떡을 해준다거나 된장국을 끓여주시지 않고, 몽
땅 방앗간에서 팔 떡에 넣으셨어요. 한번은 떡이 너무 먹고 싶었던 네 자매가
똥똥 뭉쳐 엄마 몰래 방앗간에서 팔려고 놔둔 쌀가루를 흠쳐다가 썩을 넣고 떡
을 만들어 먹었어요. 혹시 엄마가 눈치 챌까 싶어 서둘러 만들어 먹다 보니 설
익은 떡을 먹게 됐고, 그날 저녁, 네 자매 몽땅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말도 아니었습니다.

- 송은옥님

30년 전, 이른 아침부터 엄마는 남의 집 품앗이를 하러 들로 나가셨고,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아침밥을 해서 동생들 도시락까지 싸줘야 했습니다. 도시락 반찬이라고는 된장 김숙이 밖에 넣어두었던 장아찌랑 집 앞산 돌 틈이나 바위틈에 널려 있던 돌나물이 전부였죠. 집 가까이 산이 있어서 가미솔 밥 뜸 들쭂으면 소쿠리 하나 들고 돌나물을 뜯어 온답니다. 깨끗이 씻은 다음 된장·고추장·참기름·깨소금 넣고 살짝 버무려 도시락 반찬으로 많이 싸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돌나물 반찬에서 국물이 흘러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은 늘 엉망이었고, 퍽퍽한 냄새도 났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도시락반찬을 책상 가운데 놔두고 나눠먹는데 저는 언제나 도시락뚜껑으로 반찬을 가려놓고 먹었습니다. 그때 그게 왜 그렇게 창피하던지... 국물 없는 마른반찬 한번 싸기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돌나물은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가난했던 그 시절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요, 지금은 그때가 그립습니다.

- 최성화 님

어릴 때 엄마가 “쭉한 바구니 캐오면 눈갈사탕사줄게” 해서 강둑에 쭉 캐러 갔어요. 푸른 강물이 넘실대는 강가에는 버들가지가 막 물이 올라서 연둣빛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고, 그 주위에 쭉이 진짜 많았어요. 정신없이 한 바구니 캐서 사탕 먹을 생각에 집에 막 달려갔지요. 그런데 엄마는 “쭉떡 다 만들어서 팔면, 그 돈으로 사탕 사줄게” 하더니 도통 쭉떡 만들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슬레이트 지붕을 올려다보니 내가 애써 캐온 쭉들이 죄다 버려져 있는 겁니다. 전 너무 슬퍼서 울면서 그 말라버린 쭉들을 소먹이로 주었어요. 저녁에 그 사실을 안 엄마께 빗자루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맛았지요. 쭉을 말려야 떡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시더군요. ‘진작 가르쳐주시지.’ 비록 쭉떡은 못 만들어 팔았지만, 엄마 손 잡고 장에 가서 눈갈사탕도, 쫄면도 살 것 얻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 박미자 님

cooking recipe 1



재 료

도다리 1마리(1.5~2kg)

❶ 비늘을 긁어내고, 내장을 제거하여 먹기 좋게 토막을 낸다.

쑥 100g ❷ 손질하여 준비한다.

대파 1대 ❸ 어슷 썰어 준비한다.

홍고추 2개

❹ 어슷 썰어 찬물에 씻어 대충 씨를 제거한다.

된장 2큰술

도다리 쑥국

❶ 멸치 육수 만들기

물 12~13컵 사이로 준비하여 끓으면 국물용 멸치 20마리 정도 넣고 3분간 끓여 국물만 사용한다.

❷ 만들기

❶ 냄비에 준비된 멸치육수를 넣고 끓으면 된장을 풀고 잘라 놓은 도다리를 넣고 끓인다.(끓기 시작하면 중간불로 줄여 15분 정도 끓인다.)

❷ 쑥을 넣고 한소끔 끓인 후 대파와 홍고추를 올려 완성한다.



cooking recipe 2

유채나물 된장무침

재 료

유채나물 200g

❶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어 살짝 데쳐낸다.

❶ 맛된장 만들기

❶ 양념한 다진소고기 50g(간장 1/2큰술, 다진마늘 1작은술, 설탕 1작은술 후추 약간)를 볶다가 양파 1/2개, 호박 1/4개, 표고버섯 2개, 청양고추 1개를 잘게 썰어 넣고 볶는다.

❷ ❶에 된장 1컵을 넣고 잘 저어 볶듯이 저어준다.

❸ 멸치국물 1컵을 넣고 비글비글 3~4분 정도 끓여 식힌 후, 냉장 보관한다.

❹ 만들기

❶ 데쳐낸 유채나물을 찬물에 한 번 헹구 체에 밭쳐 물기를 제거한다.

❷ 맛된장 1~2큰술, 들기름 1큰술과 깨소금 1큰술을 넣고 맛이 들도록 조물조물 무친다.

‘구라’를 잘 푸는 해설

얼마전, WBC 중계에서 해설가 허구연의 해설을 들었다. 야구 해설이 경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부분만 전달해야 한다면, 허구연의 해설은 종종 산으로 간다 싶을 정도로 산만하다. 때론 야구 경기에 상관없이 뛰는 선수와 함께 식사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 선수의 평소 술버릇 같은 사생활을 공개하기도 한다. 여기에 국가대표팀의 경기라도 할라치면 해설자의 객관성은 저 멀리 던져버린다.

지난 베이징올림픽 야구 준결승 전 때는 일본 야구선수 사토가 중요한 상황에서 실수를 저지르자 “고마워요 사토”라고 말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어떤 야구팬들은 허구연을 ‘허구라’라고도 한다. 하지만 허구연의 해설은 그렇기 때문에 ‘국가대표전’을 보는 맛을 살려낸다. 12인치 흑백 TV 앞에 웅기종기 모여 앉아 홍수환이 4전 5기의 신화를 쌓는 것을 보던 그때부터 WBC가 열린 지금까지 우리에게 국제 경기는 단순한 운동 경기가 아니라 한 판의 축제였다. 다 같이 모여 경기의 흐름에 따라 “아이고!” “에이!” “잘했어!” 같은 추임새를 넣으며 경기를 보다 보면 어느새 생판 몰랐던 사람들도 친구가 된다.

2002한일월드컵 당시에는 한 아파트의 주민 전체가 대형 스크린으로 우리 팀의 경기를 지켜보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았는가. 이런 분위기에서 해설자는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이 축제를 위한 MC이기도 하다. 때론 너무 주관적이라는 말을 듣지만 자꾸 한국과 일본을 시합하게 만드는 WBC의 대진 방식을 “미국 유리하라고



만든 룰”이라고 꼬집는 그의 멘트는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준다. 좋은 해설가는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력도 필요하지만, 야구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단박에 경기의 룰을 이해시킬 수 있는 직관과 재치도 필요한 셈이다. 시합을 보면서 ‘구라’를 풀지 못한다면 얼마나 밋밋하겠는가.

스포츠 중계뿐만이 아니다. 어떤 주제는 전문적인 내용을 재미있는 ‘구라’로 풀 수 있다면 시청자들은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신나게 떠들 수 있지 않을까. MBC 〈100분 토론〉은 평소의 다소 딱딱한 분위기와는 달리 특집으로 진중권·전원책 등 ‘한 말발’ 하는 논객들을 초청해 시청자들에게 시사 토크도 얼마든지 재미있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MBC 〈명랑히어로〉는 방송 초기에 시사적인 이슈를 김구라와 박미선 같은 방송인들이 자유롭게 말하도록 해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지금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건 단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지식들을 시청자의 언어로 말하고, 시청자들이 스스로 수다를 떨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좋은 해설가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물론 그런 수다들 사이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겠지만, 모든 사람이 보는 TV의 역할에는 만드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모두 한 가지 주제를 보고, 느끼고, 실컷 떠들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야구를 사람들이 즐기도록 만들 줄 아는 ‘허구라’ 허구연처럼 운동뿐만 아니라 정치나 사회 같은 분야에서도 ‘구라’를 잘 푸는 해설가들이 많이 등장한다면 세상은 좀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



내일이면 늦으리

시아머님이 돌아가신 때, 날이 좋아 외려 마음이 더 가라앉았다. 비라도 내리면 날씨가 마음 같아 더 가라앉는 느낌은 없었으련만 발인하고 하관하는데 날이 더 말갭게 개었다. 개나리·진달래·목련·벚꽃들이 별 좋은 곳에선 먼저 활짝 피었고, 우리 동네 산기슭엔 꽃봉오리들이 터질 듯 말 듯하여 멀리서 보면 꽃 색깔과 같은 안개가 둘러있는 것 같았다.

23년 전 시어머님을 처음 뵈던 날, 칠순 갓 넘긴 지금의 큰시누 나이였다. 선머슴아 같은 내 모양에 가만히 계시기에 “제가 아드님 밥이나 제대로 차려드릴지 걱정되시죠?” 했더니, “어떻게 내 마음을 읽듯이 아냐?” 하셨다.

만며느리에게 부엌살림을 맡긴 지 오래되셔서 기가 막히다는 시어머님 음식솜씨를 말로만 전해 들었다. 살면서 시이모님댁·큰시누댁에서 그분들 솜씨를 맛보면서 ‘어머님도 이러 하셨겠구나’ 짚어볼 수 있을 뿐이다. 솜씨가 뛰어나셨고, 뉴스를 좋아하셨고, 정치인 이름도 줄줄이 꿰고 계셨다. 어느 날 “이렇게 시집오지 않고 공부하셨더라면 무슨 일 하고 싶으셨어요?” 했더니, “정치!” 하고 간단히 답하셨다.

한 대 걸러 손자·손녀들보다 당신 자식이 더 각별하셨다. 손주들이 아파 당신 따님들이 피곤한 기색이라도 있으면 당신 따님들 힘들다며 “그게 더 속상하다” 하셨다.

93세까지 사시다 주무시듯 가셨으니 호상이란다. 그러나 100세를 누리셨어도 남은 자식들에겐 삶의 뿌리가 뽑히는 상실감이 호상이란 말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 누구보다 독신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사신 둘째이주버님이 걱정된다.

“엄마 가시면 나도 따라간다”고 말씀하셨던지라 더 걱정된다. 3남3녀, 6남매 중에 둘째이주버님이 가장 각별하셨다. 혼자 사시니 더더욱 그러셨을 게다. 어머님께서도 “내가 재 땀에... 저걸 두고 편히 눈 감을 수가 없다” 하셨다. 자식이 여럿 있어도 각별한 인연은 따로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든다.

여고 동창들이 문상와서는 요즘 세상에 친정엄마 모시고 사는 너는 큰 특권을 누리는 거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물론 같은 집,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나는 엄마 옆에서 하루 일을 자분자분 얘기하며 재물을 떨어본 적이 거의 없다. 엄마가 앉아계시거나 서 계신 모습만 보고, 바람소리 나게 들어오고 나가는 게 내 일상이다.

부엌에서 바쁘다보니 계단을 내려오는 엄마 걸음걸이가 얼마나 불편한지, 험겨워 하시는지 몰랐고, 허리가, 무릎이, 어깨가 얼마나 허물어져 가는지를 찬찬히 살펴 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무심하기 짝이 없었다. 말하는 게 일이라 집에 오면 입 꼭 다물고 되도록 말없이 지냈으니 얼마나 못된 딸인가? 나는!

모든 게 결국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많이 편찮으셨던 엄마는 봄이 되면서 기운이 좀 나아지셨다. 정밀검사·조직검사를 마다하고 그냥 살기로 했으니, 앞으로 어떤 괴로운 일이 닥칠지는 모르지만, 엄마께 마음으로 다가가는 이시간이 주어진 게 정말 고맙기만 하다. 늦지 않은 이 기회가 소중하다는 걸 새삼느낀다. ♥



결혼 19년, 우리만의 파티

지난 3월 20일은 19번째 결혼기념일이었다. 어느새 19주년, 곧 20주년을 바라보면서 올해는 뭔가 달라야 할 거라는 부담감이 왔고, 몇 주 전부터 고심하기 시작했다. 휴대전화 일정표에 ‘ㅋㅋ 결기(결혼기념일의 줄

임말)’라고 입력해놓고, 고심고심하고 있었다. 막상 전날 저녁이 되었는데도 별 뽕족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좋은 생각은 떠오르지 않고 시간은 다가오고... 우선 장미 19송이씩 2묶음을 주문해 결혼기념일 아침에 도착하도록 했다. 의미는 19주년을 맞은 두 사람을 축하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50송이는 좀 비쌌고, 19송이는 좀 빈약하다는 생각에서였다. 38송이는 가격도 예뻐고, 모양도, 의미도 그럴 듯했다.

3월 20일 아침 8시, 약속한 붉은색 19송이, 분홍색 19송이의 장미가 도착했다. 당일 아침은 무사히 넘어갔다는 안도감을 아내의 표정에서 얻어낼 수 있었다. 아내는 장미꽃을 화병에 꽂는다고 바빴다.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오후에 전화통화를 하기로 하고, 방송곡으로 출발했다. 여성시대를 진행하는 내내, 사무실에 앉아서 점심도 시켜먹는 내내 고민을 해봐도 그럴 듯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아내와 둘이 저녁식사를 하고 분위기 좋은 데를 가려고 했다. 그런데 친한 선배의 시어머니 상 때문에 조문도 해야 해서 그리로 먼저 갔다. 그리고 나니 아내가 딸에 학원이 밤 10시 30분에 끝난다고 데리러 가잔다. ‘이런 날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구나!’ 나만의 현실, 우리만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가항력을 느꼈다. 결국 집에 들어와 쉬게 되었고, 잘 시간이 되었다.

뭔가 얘기를 길게, 자세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대화로 몰았다. 1989년 1월, 아내의 친구 생일모임 자리에서 처음 만났던 날, 각자의 감정, 그 순간순간 변하던 심리. 그 다음날 아침, 내가 전화했을 때 떨리기 시작했다는 아내의 얘기, 처음 본 순간 결정적인 느낌이 왔다는 나의 고백. 새벽 3시가 되도록 우리는 긴 얘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정말 지겹도록(?) 같이 있는 부부다. ‘우리 부부처럼 붙어 다니는 부부가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는 거의 같이 지내면서도 하지 않았던 그 시절 얘기, 그리고 부부싸움 때의 속마음을 처음으로 말로 했다. 아내가 기억하는 최대의 부부싸움 후, 새벽에 처갓집에 데려다준 얘기를 할 때, 나의 가슴 아린 마음이 그때 그 느낌 그대로 솟아났다. 미안하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서로 좋아했던 그 시절이어서 기분이 좋았다. “내가 나갈 때, 왜 안 잡았느냐?”가 아내의 섭섭한 마음이었고, “부부싸움 후, 처갓집으로 가는 마누라를 데려다 주는 열빠진 놈(?)이 어디 있냐?”가는 도중에 격한 감정에 어찌 잘못 될까봐 안전하게 처갓집 문 앞까지 데려다주는 내 마음을 모르겠냐?”가 나의 항변이자 아내에 대한 변함없는 나의 사랑 표현이었다. 얘기를 끝없이 하고 싶었다. 연애했 때, 새벽 내내 전화하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결혼 19주년, 화끈한 이벤트는 없었으나 새벽까지 이어지는 우리 부부의 대화는 서로 가슴 깊은 곳까지 보여준, 그야말로 ‘의미있는’ 우리만의 ‘파티’였다. 이제 내년 3월 20일, 결혼 20주년의 빅 이벤트를 기대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즐겁게 내년을 기다려본다. ♥



내 심리의 반쪽

광주에 사는 어머니께서 올라오시던 날이다.

영등포역까지는 도보로 30분쯤? 그런데 먼저 도착한 누나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 갑작스레 허기가 느껴졌다. ‘곧 저녁식사를 할 건데 좀만 참지 뭐’ 그런데 1분, 2분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딘 걸까? 머리까지 멍해지더니 진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열차가 도착하기 5분 전, 안내심이 바닥나면서 발걸음이 패스트푸드점으로 향한다. 제일 큰 사이즈를 사서 콜라도 없이 우걱우걱 먹어대기 시작했다. 한 입, 두 입... 구름 가득 낀 하늘 사이로 구멍이 ‘뽕~’ 뚫리듯 가슴 한가운데 청량감이 밀려왔다. ‘오옷!’ 근래 겪지 못했던 강렬함이다. 청양고추 3개 먹었을 때만큼의 충격이 뜨뜻미지근한 햄버거 하나로 가능하다니 놀라울 뿐이다. 뜻하지 않은 행복감에 입꼬리는 자연 스, 아(Ah...)... 바로 그때 저쪽 계단 사이로 어머니 얼굴이 떠오른다. “엄마, 여기가, 여기!”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반쪽이다. 심각한 것을 감추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다. 무엇의 반쪽이냐고? 주변 상황과 내 심리의 반쪽이란 말이다. 테이프를 다시 돌려 내가 햄버거를 먹기까지 왜 그렇게 주저했는지 솔직한 내막을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배가 고파 무언가를 먹고 싶었다.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선 적당히 속을 비워야 했고, 그렇기에 돈도 아까웠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영등포역 이곳저곳에 자리 잡은 노숙인들 때문이다. 남루한 옷차림에 검고 초췌한 얼굴, 왜 그렇게 가슴 한구석을 불편하게 하는지. 나와 눈이 마주친 40대 중반의 아저씨는 표정이 없다. 아니, 있었지만 희미하게 처연함만이 묻어났다. 차라리 날 노려보거나 뭘 보냐고 욕박질렀다면 덜 했을지 모르겠다.

식사는 제대로 했을까. 텔레비전을 보면 노숙인들도 일용직 등으로 약간의 돈을 번다고 하던데, 그런데 저 옷차림이면 누가 받아줄까.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싫어할 것이다.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씻어야 할 텐데, 목욕탕 주인은 들어 보내줄까. 주인들을 채근하기 이전에 입장을 바꿔보자. 사실 나라도 꺼려진다. 일전에 한 노숙인 주변으로 동심원이 그려진 것을 본 적이 있다. 만원 지하철에 구멍이 뽕 뚫린 것이다. 20대로 보이는 한 사내는 악취 때문인지 손으로 코를 가리고 있었다. 열차기 정의감이 발동한 난 혀를 찼다. ‘냄새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사람 무안하게 저런 짓을 해. 참 아박하구나.’ 그런데 잠시 후, 좁은 차칸의 공기를 타고 노숙인의 체취가 전해졌다. 코까지 쫓한 게 삭힌 홍어냄새 같다. 젊은 사내에게 미안해졌다.

이러한 내막을 가지고 있던 탓에 고민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궁지에 몰린 채 우리 사회의 자연스런 부분이 되어버린 그들. 대다수 사람들이 해답을 낼 수 없는 ‘불청객들’ 앞에서 3,000원짜리 햄버거는 굉장히 큰 존재가 되어버렸다.

열 걸음 정도 앞에 하얀색 ‘밥 모금함’ 상자가 놓여 있었다. 지갑에서 5,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넣었다. 순간 부끄러워서 재빨리 도망쳐 왔다. 조금 있으면 1인분에 9,000원 하는 삼겹살을 먹는다는 사실과 5,000원으로 죄책감의 일부를 덜고자 했던 이기적 선행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하여 삼겹살을 먹는 동안은 ‘일심(一心)으로 일관해야 했다. 고생고생하며 2남 2녀를 키우시고 5년 전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셔야 했던 가엾은 우리 어머니, 어머니만을 생각하며 귀와 마음을 단았다. ♥

모더존 베커의 〈누워 있는 엄마와 아기〉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의 하나가 엄마 젖을 먹다 잠이 든 아기의 얼굴입니다. 엄마의 젖으로 배가 부른 아기는 무척이나 만족스런 표정을 짓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이지요. 그런 아이를 그윽이 바라보는 엄마도 이내 행복한 표정으로 잠이 들곤 합니다. 세상에 천국의 평화가 밀려오는 순간이지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 모더존 베커(1876~1907)는 “천국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천국을 찾느니 어머니 품에서 천국을 찾으라는 거지요. 사랑과 평화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잠이 든 엄마와 아기의 별거벗은 모습이 특히 인상적인데요, 모든 문명의 가식을 벗어버리고 순수한 생명의 연대로 하나가 된 그 모습이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엄마와 아이 사이의 사랑을 아름답게 그린 모더존 베커는 그러나 불행하게도 자신의 아이를 낳은 직후 죽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그림은 그의 살아생전 소망이 진하게 배어 있는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안을 수는 없었지만, 모더존 베커는 이 그림으로 그 아이를 미리 다 안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미리 다 느껴 보았습니다. 아이도 자라면서 이 그림 앞에서 그 사랑과 따뜻함을 절절히 느꼈을 겁니다.

모더존 베커는 소박하고 원시적인 여인 인물상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특히 아이와 함께 있는 어머니 그림들은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한 사랑의 표현으로 문명의 때에 찌든 관객의 마음을 상쾌하게 씻어주지요. 고갱·세잔 등 프랑스 후기 인상과 화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단순하면서도 두터운 붓질로 개성적이고 표현성이 풍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독일 브레멘의 쿤스트할레에 그의 예술을 기리는 재단이 있습니다. ♥



*파울라 모더존 베커 〈누워 있는 엄마와 아기〉, 1906.
캔버스에 유채, 82x125cm, 브레멘, 쿤스트할레